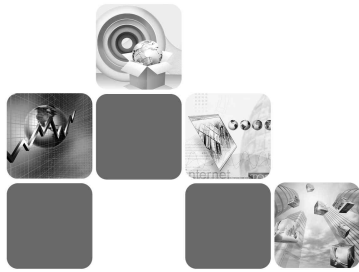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28

1. 미국 - 가정용전기기기 29
2.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34
3. Ex-Briefing 40

III. 부록 43

1. ICT 생산 통계 44
2. 2022년 3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5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2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0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61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2.3월 ICT 수출은 232.6억 달러(33.6%↑), 수입은 128.6억 달러(17.5%↑) 기록

- (수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33.6% 증가한 23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 역대 상위 ICT 산업 수출(억 달러) : (1위 '22.3월) 232.6, (2위 '21.12월) 221.4, (3위 '21.11월) 214.9

-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늘어난 반면 D-TV는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미국·일본·EU·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132.0 (37.9)	24.5 (45.3)	15.1 (36.9)	0.9 (△15.3)	17.9 (36.9)	232.6 (33.6)
중국(홍콩)	74.9 (30.6)	10.9 (22.3)	5.9 (59.3)	0.0 (52.1)	6.8 (39.6)	105.7 (28.6)
미국	10.2 (45.3)	0.2 (14.0)	2.3 (111.0)	0.1 (30.7)	4.9 (24.9)	28.4 (37.7)
일본	1.3 (16.4)	0.2 (136.3)	0.2 (△6.5)	0.0 (160.2)	1.1 (38.6)	4.6 (14.2)
EU	2.3 (26.9)	0.4 (21.2)	3.5 (55.6)	0.3 (59.2)	2.2 (57.8)	14.2 (27.1)
베트남	15.8 (59.0)	11.7 (73.5)	0.7 (△65.6)	0.1 (△46.2)	0.4 (147.2)	35.0 (48.9)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23.9% 늘어난 113.9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반도체(60.9억 달러, 29.4%↑), 컴퓨터 및 주변기기(15.7억 달러, 0.6%↑), 휴대폰(9.2억 달러, 16.1%↑), 디스플레이(4.8억 달러, 55.7%↑) 등 주요 품목 수입이 증가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60.9억 달러), 베트남(20.8억 달러), 미국(21.0억 달러), EU(7.7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104.0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2년		2021년	
		3월P	1~3월P	3월	1~3월
수출	전체 산업	634.8 (18.2)	1,728.2 (18.0)	536.9 (16.3)	1,464.0 (12.5)
	ICT	232.6 (33.6)	617.4 (26.1)	174.1 (8.9)	489.5 (13.6)
수입	전체 산업	636.2 (27.9)	1,768.6 (29.5)	497.4 (19.0)	1,366.0 (12.4)
	ICT	128.6 (17.5)	365.7 (18.3)	109.5 (15.9)	309.2 (19.0)
무역수지	전체 산업	△1.4	△40.4	39.5	98.0
	ICT	104.0	251.7	64.6	180.3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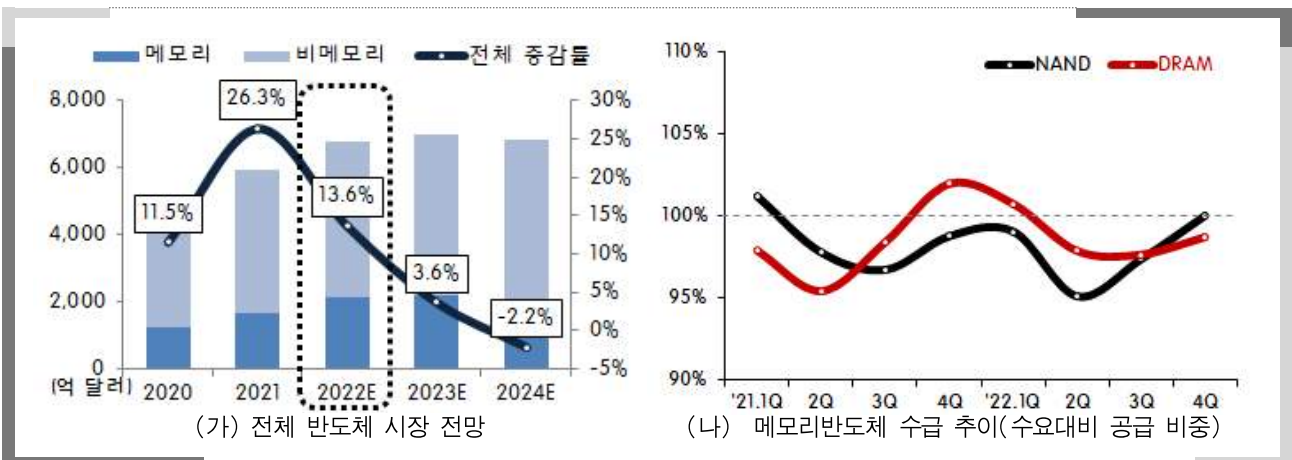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22년 반도체 시장은 전방 수요 증가 등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가 기대

- (시장 전망) 전방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2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6,76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Gartner, '22.3월)
 - '22년 반도체 시장은 비대면 및 신규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10%대 이상의 고성장률로 3년 연속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1.12월 전망치 기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914억 달러로 예측했으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2.3월 전망치 기준 소폭 상향 조정
 -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전방 산업 수요가 둔화되면서 시장 성장폭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
 - (메모리 반도체 : 2,122억 달러, 28.0%↑) 데이터 센터 등 서버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하회하는 수급불균형이 연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은 두 자릿수의 고성장세 달성이 기대
 - ※ D램 수급 전망은 '21.4분기~'22.1분기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나 서버 등 전방 수요가 지속 확대되면서 2분기 다시 공급 부족 상황으로 반전되고 연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반면 낸드플래시 수급 전망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21.2분기 이후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2.2분기 가장 심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22.4분기 균형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비메모리 반도체 : 4,638억 달러, 8.1%↑) 하반기 공급 부족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및 자율주행·전기차 등 차량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 유지 전망

그림 1-1 | 전체 반도체 시장 및 메모리반도체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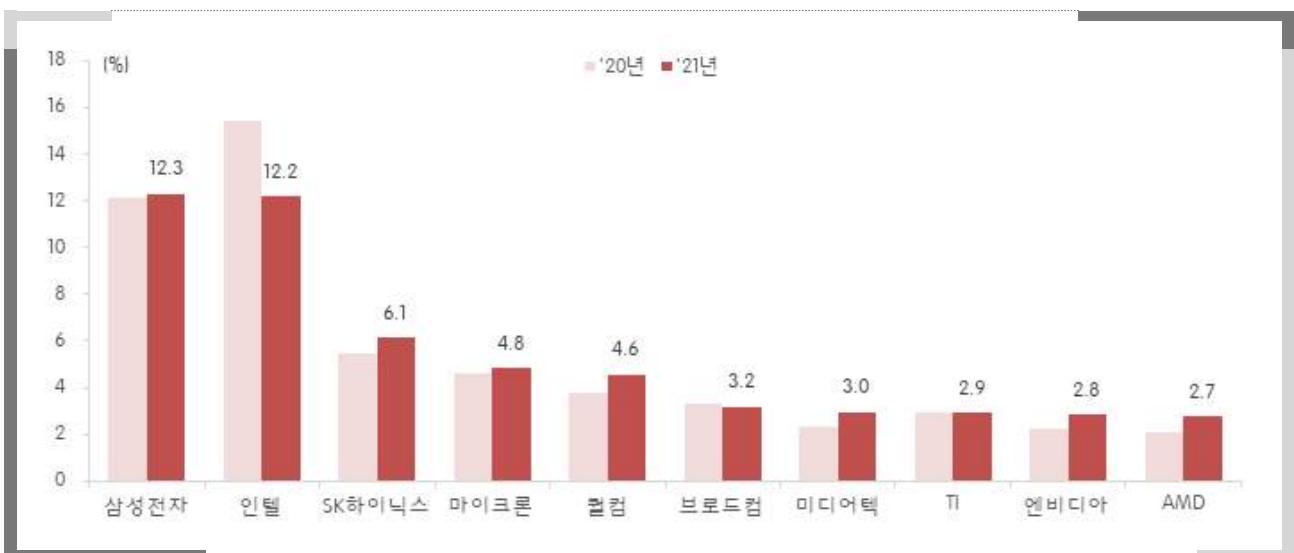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2.3.

□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선두 자리를 재탈환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점유율을 확대

- '21년 세계 반도체(파운드리 제외) 매출은 5,950억 달러로 전년(4,709억 달러) 대비 26.3% 증가했으며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매출 1위를 달성(Gartner, '22.4월)
- 지난해 반도체 시장은 5G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수요 증가 및 물류·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ASP) 상승 등으로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33.2% 증가한 413억 달러로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
-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0% 증가한 732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며 시장 점유율 12.3%를 기록, 기존 선두였던 인텔을 0.1%p 차로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달성. 삼성전자는 '18년 연간 매출액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3년 만에 선두에 재등극
- 인텔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PC 등 생산 차질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0.3% 부진한 725억 달러를 기록, 시장 점유율 12.2%로 삼성전자에 소폭 뒤지며 2위로 하락
- 이어 3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으며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40.6% 증가한 364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며 6.1%의 점유율을 달성
 - ※ SK하이닉스는 '21.12월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의 1단계 절차 완료 및 자회사 솔리다임 출범 등에 따른 점유율 흡수 효과와 사업 강화로 '22년 실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다음으로 마이크론(점유율 4.8%), 퀄컴(4.6%), 브로드컴(3.2%) 등이 4~6위를 차지. 특히 AMD (2.7%)는 전년 대비 68.6%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순위도 '20년 14위 → '21년 10위로 급등

그림 1-2 | 업체별 연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 Gartner, 2022.3.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 정부의 도시 봉쇄 조치로 반도체 생산 중단이 발생

-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일부 도시에 봉쇄 명령이 시행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의 현지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현지 반도체 생산량이 감소
 - 중국 정부가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²⁾를 시행하는 가운데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현지에 확산되면서 상하이·쿤산·선전 등에 이어 저장성 쑤저우, 산시성 시안, 허난성 정저우 등 주요 지역에서 연이어 도시 전면·부분 봉쇄 명령이 시행
 - 이 같은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에 따라 현지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중국 내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피해가 발생
 - 주요 반도체 기업의 생산라인 및 물류센터 등이 위치한 중국 상하이에서는 '22.3.28일 이후 약 한 달간의 장기간 도시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상하이시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특정 산업 분야 통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전망
 - 또한 삼성전자가 위치한 시안에 부분 봉쇄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서 생산 차질 가능성을 경계
 - ※ 시안은 '21.12.22일~'22.1.24일 약 33일간 전면 봉쇄를 시행했으며 '22.4.15일~19일에는 부분 봉쇄 조치를 시행
 - 현지 정부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가 잇따르면서 '22.3월 중국 반도체 IC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한 285억 개를 기록했으며 '22.1분기 생산은 807억 개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연합뉴스, 윈소스 중국 국가통계국, '22.4월)
 - ※ 현지 반도체 생산은 '22.3월 말 시작된 상하이 봉쇄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감소세 지속 가능성이 제기

표 1-3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주요 반도체 기업에의 영향

업 체	내 용
온세미컨덕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가 중국 상하이에 설치된 물류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고 싱가포르 및 필리핀 마닐라 물류센터 등으로 자원을 옮길 방침. 상하이 물류센터 재가동 시점은 미정 ※ 온세미컨덕터는 상하이·싱가포르·마닐라·나리타 등 아시아 지역 4곳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상하이 물류센터는 아우디·GM·포드 등 완성차 업체의 중국 현지 공장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 • 한편 온세미컨덕터의 중국 생산 공장은 광둥성 선전, 장쑤성 쑤저우, 쓰촨성 러산에 있으며 위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봉쇄될 경우 공장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S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에 핵심 생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는 봉쇄 중에도 필수 인력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했지만 인력도 유지 수준의 제한적인 상황이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물류 차질로 원자재 반입, 일부 부품 조달, 제품 반출 등에 난항 • 다만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를 추진 ※ 4.1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공장 재가동을 위해 반도체·자동차·장비·바이오의약품 등 주요 분야에서 1차 화이트 리스트 기업 666곳을 발표. 반도체·집적회로 부문은 83곳(12.5%)으로 SMIC, 화홍그룹 등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ASML, 대만 TSMC 등 글로벌 기업도 포함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공장은 시안시 방역당국의 부분 봉쇄 조치 시행('22.4.15일~19일)에도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봉쇄 전면화 또는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경계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2)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내 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감염자 수가 ‘제로’(0)가 될 때까지 그 지역 봉쇄 등 엄격한 통제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는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정책

2) 수출 동향

□ 메모리 및 시스템 동반 성장으로 '22.3월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 (품목별)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스템 반도체 최고 실적 및 메모리 반도체 호조로 '22.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한 132.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11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를 유지

※ 역대 반도체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2.3월) 132.0, (2위, '21.12월) 128.4, (3위, '18.9월) 125.4

- (메모리 반도체 : 82.0억 달러, 34.0%↑) 모바일 및 서버 등 반도체 수요 증가, 단가 상승 등으로 D램,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낸드플래시 등이 선전하며 19개월 연속 호조세를 지속
- (시스템 반도체 : 44.5억 달러, 53.5%↑) 파운드리·패키징 등 전반적인 수요 증가로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대를 상회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 역대 시스템 반도체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2.3월) 44.5, (2위, '21.11월) 38.9, (3위, '21.12월) 38.7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
 - 중국(홍콩 포함, 74.9억 달러, 30.6%↑)은 시스템 반도체(58.1%↑)와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 MCP 등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23.3%↑)가 동반 성장하면서 18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베트남(15.8억 달러, 59.0%↑)은 시스템 반도체(22.0%↑) 회복과 더불어 D램, MCOs 등 메모리 반도체(117.5%↑)가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

표 1-4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3	4	5	6	7	8	9	10	11	12	'22.1	2	3
반도체	95.7 (7.9)	94.0 (29.4)	101.1 (23.9)	112.3 (34.3)	110.3 (38.6)	117.6 (41.8)	122.3 (27.4)	112.3 (28.4)	120.9 (39.5)	128.4 (34.5)	108.9 (24.1)	104.6 (24.0)	132.0 (37.9)
메모리	61.2 (8.2)	59.3 (18.9)	65.7 (13.6)	75.4 (30.7)	71.4 (43.8)	76.4 (50.6)	79.5 (28.6)	69.5 (28.1)	76.4 (47.3)	84.1 (40.3)	64.8 (21.9)	63.4 (21.4)	82.0 (34.0)
D램	26.9 (1.3)	28.7 (5.1)	29.0 (2.2)	33.7 (14.3)	35.2 (39.8)	37.6 (55.1)	37.8 (28.7)	35.6 (41.1)	37.1 (56.1)	41.3 (64.6)	32.0 (34.3)	31.8 (40.1)	38.9 (44.3)
낸드	4.4 (△9.7)	4.9 (△7.7)	5.9 (22.9)	6.0 (24.0)	4.9 (0.5)	5.7 (12.5)	6.6 (13.0)	6.3 (25.5)	6.2 (24.0)	6.4 (△5.8)	5.2 (6.8)	6.4 (38.8)	7.5 (68.8)
메모리 MCP	25.4 (26.0)	22.0 (52.2)	27.3 (28.9)	32.1 (68.5)	27.1 (72.2)	28.2 (58.9)	30.3 (34.3)	23.5 (19.8)	30.2 (57.6)	31.3 (31.3)	24.1 (16.4)	21.1 (△1.5)	30.5 (19.9)
메모리 MCOs	4.3 (△10.9)	3.6 (28.4)	3.4 (△1.7)	3.5 (△17.6)	4.0 (8.4)	4.7 (32.9)	4.7 (19.4)	3.9 (△7.3)	2.8 (△26.9)	4.9 (21.9)	3.4 (△6.4)	4.0 (20.3)	5.1 (19.1)
시스템 반도체	29.0 (9.3)	29.3 (59.0)	30.2 (55.7)	31.3 (46.5)	33.4 (35.8)	35.6 (31.2)	37.5 (31.7)	37.3 (32.3)	39.0 (31.1)	38.9 (30.1)	38.7 (33.0)	36.1 (33.9)	44.5 (53.5)
개별 소자	1.5 (12.7)	1.5 (34.7)	1.4 (29.4)	1.5 (22.0)	1.6 (13.7)	1.5 (19.5)	1.5 (2.4)	1.5 (4.1)	1.5 (△4.0)	1.5 (△1.3)	1.4 (△4.0)	1.4 (0.2)	1.6 (2.9)
광전 소자	2.7 (△9.1)	2.6 (24.4)	2.5 (13.2)	2.7 (23.8)	2.5 (△11.9)	2.6 (△2.4)	2.4 (△19.5)	2.5 (3.9)	2.5 (5.4)	2.5 (△14.7)	2.4 (△13.4)	2.0 (△22.6)	2.0 (△24.6)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5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3월 당월				1~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02.5	25.9	39.0	중국	55.1	57.1	41.8	144.2	43.0	41.7
2	홍콩	265.9	28.2	20.7	홍콩	19.8	-11.2	15.0	52.4	-7.2	15.2
3	베트남	140.3	21.9	10.9	베트남	15.8	59.0	12.0	42.8	42.8	12.4
4	대만	107.0	67.9	8.3	대만	12.1	54.3	9.2	30.9	37.4	8.9
5	미국	95.2	18.0	7.4	미국	10.2	45.3	7.8	23.0	16.1	6.7
6	싱가포르	38.3	48.5	3.0	싱가포르	5.0	50.5	3.8	13.1	67.3	3.8
7	필리핀	38.0	31.0	2.9	필리핀	3.0	18.9	2.3	10.0	34.7	2.9
8	말레이시아	16.5	22.7	1.3	인도	2.4	143.5	1.8	5.8	53.5	1.7
9	일본	13.9	28.9	1.1	말레이시아	1.5	29.1	1.1	4.3	20.6	1.3
10	인도	12.6	18.0	1.0	일본	1.3	16.4	1.0	3.4	16.7	1.0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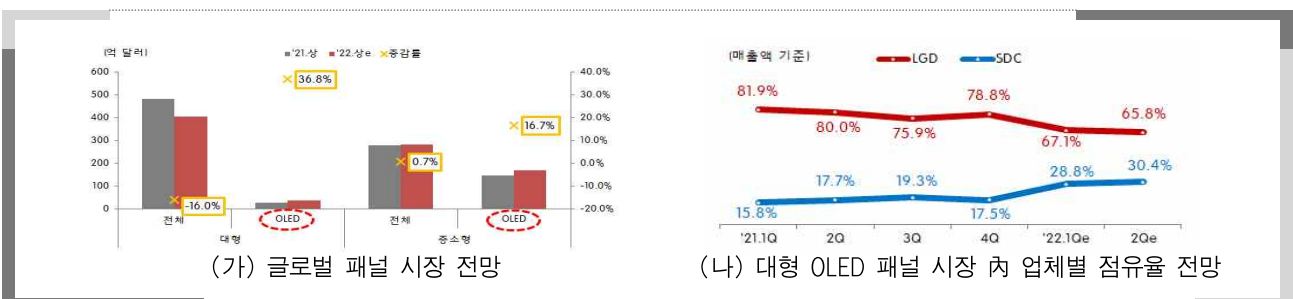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올 상반기 전체 패널 시장은 역성장을 보이겠으나, OLED 패널 시장은 증가 일로

- (시장 전망) '22.상반기 패널 시장(686.9억 달러, △9.9%)은 반락할 전망(OMDIA, '22.3월)
 - (대형 시장) 中 코로나19 오미크론 재확산에 의한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과 더불어 전방 수요 감소, 부분품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 게다가 LCD 패널 가격 하락세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대형 패널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6.0% 감소한 405억 달러에 그칠 전망
 - ※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상반기(282.7억 달러) 실적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관측
 - 다만 대형 OLED 패널 시장(37.7억 달러, 36.8%↑)은 전방 산업인 OLED TV 수요 확대 등으로 두 자릿수대의 높은 성장을 보이며 전체 패널 내 비중도 9.3% 규모로 확대될 전망
 - (중소형 시장) '22.상반기 시장(281.9억 달러, 0.7%↑)은 기저효과 등으로 IT기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보합세 수준에 그치겠으나 스마트폰·자동차용 OLED 패널 탑재 증가 등으로 OLED 패널 시장(169.7억 달러, 16.7%↑)은 성장 기조가 뚜렷
 - ※ 한편 신규 패널 수요처로 주목 받고 있는 VR·AR 기기 시장은 올해 1,419만 대(43.9%↑) 규모로 큰 폭 상승하며 중소형 시장 내 입지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Trendforce, '22.2월)
- (OLED 패널 경쟁 동향) 업체 간 OLED 패널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
 - (대형 시장) 대형 OLED 패널 시장을 주도해오던 LG디스플레이(LGD)는 '22.1분기 삼성디스플레이(SDC)의 본격적인 경쟁 전선 참여로 점유율(분기별 매출액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4.8%p 감소하며 70%대를 하회할 전망
 - (중소형 시장) 이미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中 BOE는 '22.1분기 14.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선두를 선점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62.8%) 추격에 매진(OMDIA, '22.3월)

그림 1-4 | 글로벌 패널 시장 전망 및 대형 OLED 패널 시장 내 업체별 점유율 전망



자료 : OMDIA, 2022.3.

□ 글로벌 업체들은 ‘OLED 패널’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등을 추진

- 국내 양사는 ‘OLED KOREA 콘퍼런스(’22.4.7일)’에서 올해 시장 전략을 발표, 패널 신기술 개발에도 착수하며 OLED 패널 시장에서의 위상 확대에 매진
 - (삼성디스플레이) 올해 초부터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QD-OLED 패널 개발을 시작해 주목. 중소형 시장에서 선보였던 폴더블에 이어 대형 시장에서 롤러블 패널을 새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전망
 - ※ 일각에서는 롤러블 패널 선두업체인 LG디스플레이를 견제하기 위한 승부수로도 관측
 - 또한 ’21.11월 양산 당시 50% 수준에 불과하던 QD-OLED 패널 수율 문제가 지속 제기됐으나 5개월 만인 ’22.4월 7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발표. 올해 상반기 내 90% 달성을 목표로 제시
 - 이외에도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1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 노트북 등으로 저변 확대를 예고. 최근 메타버스 성장과 함께 VR·AR 기기의 고해상도(1,000ppi) 품질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OLED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며 침투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
 - ※ VR·AR기기용 패널로는 주로 LCD 패널이 채택되어 왔으나 올해 출시 예정 업체인 소니(‘VR2’), 애플 등은 OLED 패널 채용을 예고해 업체 간 중소형 OLED 패널 경쟁 양상이 확대될 전망
 - ※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22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기본, 프로, 맥스, 프로맥스)’ 중 ‘프로’ 모델의 OLED 패널 전 물량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돼 눈길
 - (LG디스플레이) 올해 게이밍·투명·포터블(휴대용) OLED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 발표한 데 이어 차세대 OLED 기술을 적용하여 색 표현력, 화면 밝기 등이 개선된 ‘OLED.EX’ 패널도 소개
 - ※ ’22.2분기부터 경기도 파주와 중국 광저우에서 생산하는 TV용 패널 전 시리즈를 ‘OLED.EX’로 교체할 방침
 - 또한 중소형 시장에서는 ’21년 VR·AR기기용 OLED 패널 ‘올레도스(OLEDOS)’를 출시한 바를 토대로 VR·AR기기용 OLED 패널 수주 확대에도 집중할 계획
 - ※ 한편 동사는 올 초 기대와는 달리 ‘아이폰14 기본·프로맥스’용 LTPO OLED 패널 물량 일부 담당에 그친 것으로 관측
- 또한 글로벌 업체들은 중소형 OLED 패널 수요 확대 등으로 8세대 설비 투자 확대를 예고
 - (국내 업체) SDC·LGD는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OLED 패널 수요 확대에 따라 해당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형 OLED 생산라인을 6→8세대로 전환하는 투자를 집행할 방침. 투자 시점은 올해 하반기 내로 관측되며 ’25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
 - ※ ’24년 애플의 태블릿PC 신제품 출시시기를 고려하여 투자 시점을 지정(생산라인 확대 시 통상 2년여 기간이 소요)한 것으로 관측. ’24년까지는 6세대 생산라인으로 대응하고 ’25년부터는 8세대 라인에서 생산할 계획
 - 8세대 라인에서 생산 시 6세대 대비 수량이 2배로 늘고 가격도 장기적으로 20~30% 하락하는 점이 장점
 - (BOE) 국내 업체의 LCD 패널 철수 전략으로 해당 물량을 차지하며 대형 LCD 패널 시장을 장악한 동사는 중소형 OLED 시장 입지 확대를 위해 8세대 OLED 생산라인(월 1.5만 대) 구축 투자를 계획
 - ※ 8세대 라인 양산시기를 국내 업체보다 1년 앞선 ’24년 말로 지정하며 선제적인 패널 생산으로 애플에 수주 확대를 겨냥

2) 수출 동향

□ '22.3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OLED 수출 강세 등으로 9개월 연속 20억 달러대를 상회

- **(품목별)** 전 품목 수출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패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한 24.5억 달러 기록
 - (LCD 패널 : 6.1억 달러, 24.2%↑) 비록 LCD 패널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전방 산업인 프리미엄 TV, 비교적 패널 단가가 높은 IT기기 등의 판매 확대로 3개월 연속 성장 곡선을 유지
 - (OLED 패널 : 14.2억 달러, 69.0%↑) 폴더블·5G 등의 스마트폰向 수요 증가 이외에도 노트북, 차량용 계기판, 프리미엄 TV 등에서의 OLED 패널 채용이 큰 폭 늘어나면서 우상향 지속
 - (부분품 : 4.2억 달러, 18.1%↑) BLU(0.1억 달러, 11.5%↑) 수출 반등과 더불어 편광판(2.8억 달러, 6.6%↑)의 수출 증가 등으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 **(지역별)** 주요 교역국(베트남·멕시코 등)은 전 품목 수출이 모두 상승하며 성장 지속
 - 베트남(11.7억 달러, 73.5%↑)은 OLED 패널(10.1억 달러, 74.5%↑)과 부분품(0.6억 달러, 15.7%↑) 등의 수출 호조와 더불어 LCD 패널(0.9억 달러, 132.4%↑) 수출 급등으로 3개월 연속 오름세
 - 중국(홍콩 포함, 10.9억 달러, 22.3%↑)은 LCD 패널(4.6억 달러, 16.8%↑), OLED 패널(3.3억 달러, 35.9%↑), 부분품 수출(2.9억 달러, 17.8%↑) 등의 증가세로 15개월 연속 상승 곡선
 - 멕시코(0.6억 달러, 216.8%↑)는 LCD 패널(0.2억 달러, 176.0%↑)의 세 자릿수 성장, OLED 패널(0.3억 달러, 4,739.0%↑)의 두드러지는 상승세 등으로 '18.12월(0.8억 달러, 34.8%↑) 이후 최대 수출액을 기록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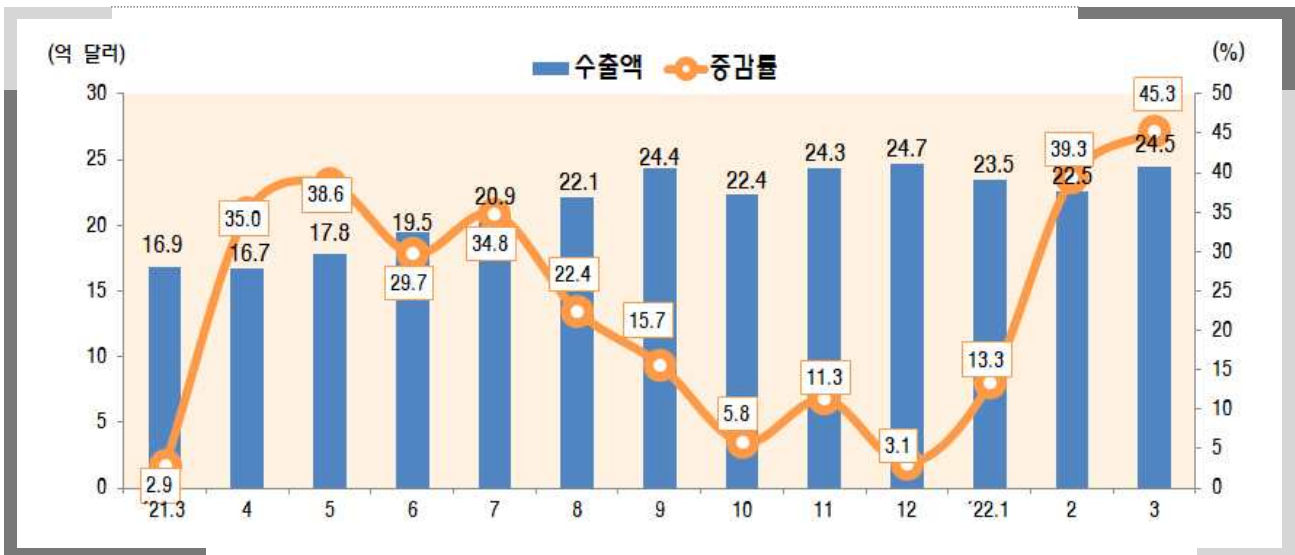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3	4	5	6	7	8	9	10	11	12	'22.1	2	3
패널	16.9 (2.9)	16.7 (35.0)	17.8 (38.6)	19.5 (29.7)	20.9 (34.8)	22.1 (22.4)	24.4 (15.7)	22.4 (5.8)	24.3 (11.3)	24.7 (3.1)	23.5 (13.3)	22.5 (39.3)	24.5 (45.3)
LCD	4.9 (△8.5)	5.0 (12.9)	4.8 (7.0)	4.7 (△2.9)	5.2 (△5.4)	4.8 (△7.1)	4.9 (△11.3)	5.1 (△3.7)	5.5 (2.3)	5.6 (△8.3)	5.4 (1.7)	5.2 (15.8)	6.1 (24.2)
OLED	8.4 (8.5)	8.4 (57.5)	9.7 (64.1)	11.2 (61.2)	12.2 (89.6)	14.0 (47.3)	16.2 (33.1)	13.9 (8.7)	15.3 (14.0)	15.3 (6.2)	14.0 (14.4)	13.1 (56.3)	14.2 (69.0)
부분품	3.6 (8.7)	3.3 (25.8)	3.3 (34.6)	3.6 (11.1)	3.6 (△1.4)	3.3 (△2.2)	3.3 (△2.9)	3.3 (10.0)	3.5 (15.7)	3.7 (10.6)	4.1 (28.0)	4.2 (28.0)	4.2 (18.1)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5.3	23.8	50.8	베트남	11.7	73.5	47.7	35.2	38.1	49.9
2	중국	102.1	15.4	41.4	중국	10.5	23.3	42.8	28.2	18.8	40.0
3	홍콩	5.1	31.9	2.1	멕시코	0.6	216.8	2.6	1.4	173.2	1.9
4	멕시코	2.6	26.7	1.0	홍콩	0.4	1.0	1.6	1.8	63.2	2.6
5	미국	2.2	0.6	0.9	인도	0.2	81.6	1.0	0.8	135.4	1.1
6	인도	1.1	50.4	0.5	미국	0.2	14.0	1.0	0.5	-16.9	0.7
7	일본	1.0	-22.7	0.4	헝가리	0.2	262.6	0.7	0.6	262.1	0.9
8	헝가리	0.8	42.1	0.3	일본	0.2	136.3	0.6	0.4	99.2	0.6
9	대만	0.6	-7.8	0.3	슬로바키아	0.1	74.4	0.2	0.2	111.2	0.2
10	폴란드	0.6	-15.6	0.2	대만	0.0	10.8	0.2	0.2	5.6	0.2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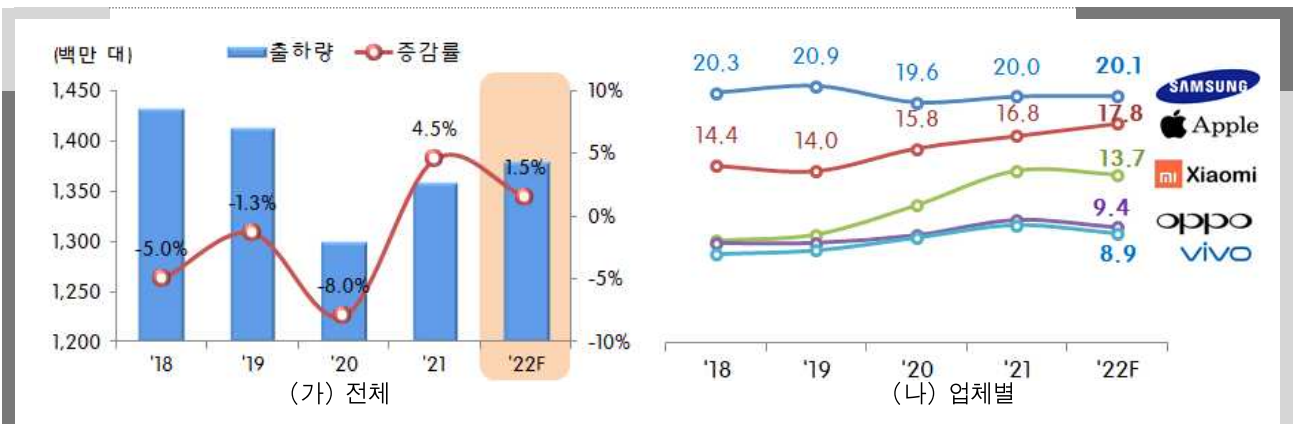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22년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선두 업체 간 경쟁은 심화될 전망

- **(글로벌)** 전년 대비 1.5% 증가한 13억 7,860만 대로 2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성장세는 제한적일 전망(SA, '22.3월)
 -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보급형 5G 스마트폰 경쟁 본격화에 따른 교체 수요와 더불어 폴더블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UDC) 등 하드웨어 혁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 다만 반도체 등 부품 부족과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역풍, '22.2.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시장 성장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22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21.12월 전망 기준 14억 2,000만 대에서 '22.3월 기준 13억 8,000만 대로 2.6% 하향 조정됐으며 러시아에 대한 복수 제재가 러시아와 교역하는 주변 국가로 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시장 성장률은 두 자릿수로 추가 하향 조정될 전망(SA, '22.3월)
- **(업체별 전망)** 삼성전자가 '22년 스마트폰 시장 선두를 지속하는 가운데 애플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며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전망(SA, '21.12월)
 - 삼성전자는 폴더블 및 중저가 제품을 확대하며 출하량 2.8억 대로 시장 1위를 수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년 연속 점유율 2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애플은 5G를 지원하는 보급형 '아이폰 SE 3세대'를 출시하는 등 전년 대비 7.5% 증가한 2.5억 대의 제품을 판매하며 점유율을 확대('21년 16.8% → '22년 17.8%)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중국 업체는 샤오미 1.9억 대, 오포 1.3억 대, 비보 1.2억 대 등 견조한 출하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점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그림 1-6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SA, 2022.3.

□ 스마트폰 생산망 관련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기업은 생산 및 부품 공급처를 다각화

- **(애플)** 중국 내 봉쇄 조치 확대 등 현지 공급망 위험이 증가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를 차세대 생산 기지로 선정하고 생산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추진하면서 선전·상하이 등 확산 정도가 빠른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봉쇄령을 시행
 - ※ 봉쇄 기간 동안 주민들은 외출이 불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해 기업의 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
 - 3.13~18일 시행된 선전시 봉쇄 조치로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으며, 3.28일에는 상하이 및 장쑤성 쿤산시가 봉쇄되면서 애플의 또 다른 위탁업체 페가트론의 생산이 중단되는 등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애플은 제품 생산에 차질 발생
 - ※ 애플의 중국 내 위탁 생산 비중은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며, 특히 페가트론은 전체 아이폰의 약 20~30%를 제작하는 업체로 상하이 공장에서만 '22년 ‘아이폰SE 3세대’ 2,000만 대가 생산될 예정
 - 이 같은 중국의 연이은 생산 중단으로 제품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애플은 인도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13 시리즈’ 생산을 시작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 등 신규 생산 지역을 모색하는 등 생산망을 넓히며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에 돌입
 - ※ 애플은 '17년 ‘아이폰SE’를 시작으로 ‘아이폰11’, ‘아이폰12’ 등 일부 제품을 폭스콘·위스트론 등 위탁 생산 업체를 통해 인도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아이폰13’으로 생산 모델을 확대. 향후 아이폰 뿐 아니라 아이패드 등도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분석
 -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인도 생산 비중은 '20년 1.3%→'21년 3.1%로 증가했으며 '22년 5~7%에 이를 것으로 예상. 다만 중국 의존도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단기간의 공급망 변화는 어려울 전망
 - 한편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애플은 관련 부품 업체에 '22.2분기 ‘아이폰 SE 3세대’ 물량을 초기 생산 물량 대비 20%(200~300만 대) 감축할 계획(닛케이아시아)
- **(삼성전자)** 글로벌 공급망 위험 확대에 따라 부품 조달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AP,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폰 핵심 부품의 중국·대만 등 중화권 비중을 확대
 - (디스플레이) 갤럭시용 OLED 패널을 BOE, CSOT 등 중국 업체로부터 일부를 조달 받을 전망. '22년 갤럭시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예상 물량은 1억 5,550만 대로 추정되며 이 중 삼성디스플레이가 96%(1억 4,900만 대), BOE(350만 대)와 CSOT(300만 대)가 각각 2%를 담당
 - (AP) ‘갤럭시S 시리즈’용 AP에 대해 미디어텍 제품 ‘디멘시티’ 탑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탑재될 경우 ‘갤럭시S22 FE’의 50%, ‘갤럭시S23(가칭)’ 아시아 지역 판매 제품 등에 장착될 전망
 - ※ 중저가 칩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던 미디어텍은 최근 플래그십 칩 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채택율이 확대

2) 수출 동향

□ 부분품 증가와 더불어 완제품 회복으로 '22.3월 휴대폰 수출은 회복세로 반등

- **(품목별)** '22.3월 휴대폰 수출은 상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완제품 및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6.9%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
 - (휴대폰 완제품 : 7.7억 달러, 75.3%↑) 상반기 신제품 출시(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22.2.25일 출시 등) 등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출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로 반등. 특히 국내 기업은 공급망 위험을 고려해 해외 생산 라인 일부를 국내로 이전해 완제품 생산을 확대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1.하반기 베트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바 있는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을 고려해 '22.2월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구미로 이전
 - (휴대폰 부분품 : 7.4억 달러, 11.6%↑) RFIC, PCB, eMMC 등이 감소했으나 3D 센싱 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9개월 연속 성장세 달성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5.8억 달러, 66.1%↑), 베트남(0.7억 달러, △65.7%), 인도 (0.1억 달러, 93.9%↑)
- **(지역별)** 베트남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EU·미국 등은 증가 달성
 - 중국(홍콩 포함, 5.9억 달러, 59.3%↑)은 완제품(△47.1%)이 하락했으나 3D 센싱 모듈,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66.1%↑)이 늘어나면서 '20.10월 이후 18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EU(3.5억 달러, 55.6%↑)는 부분품(△64.2%)이 부진했으나 국내 기업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제품(73.1%↑) 수출이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
 - 미국(2.3억 달러, 111.0%↑)은 상반기 신작 출시로 부분품(82.0%↑)과 더불어 완제품(117.6%↑)이 동반 성장하면서 '21.8월 이후 8개월 만에 성장세로 반등
 - 베트남(0.7억 달러, △65.6%)은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 축소를 위해 현지 생산 라인 일부를 국내로 이전하면서 완제품(△59.5%)과 더불어 카메라 모듈, RFIC, 패널, PCB 등 관련 부분품 (△65.7%)이 동반 하락했으며 전체적으로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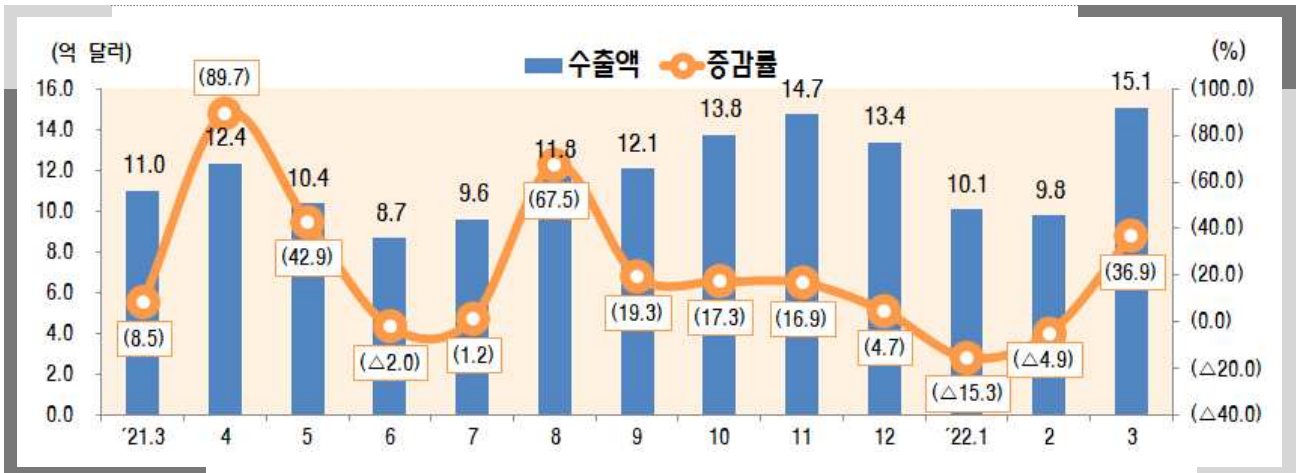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3	4	5	6	7	8	9	10	11	12	'22.1	2	3
휴대 단말기	11.0 (8.5)	12.4 (89.7)	10.4 (42.9)	8.7 (△2.0)	9.6 (1.2)	11.8 (67.5)	12.1 (19.3)	13.8 (17.3)	14.7 (16.9)	13.4 (4.7)	10.1 (△15.3)	9.8 (△4.9)	15.1 (36.9)
완제품	4.4 (△9.6)	5.7 (89.4)	4.1 (20.7)	3.9 (5.5)	3.9 (0.6)	3.9 (99.2)	3.3 (0.8)	4.0 (8.9)	4.3 (6.4)	3.7 (18.4)	1.3 (△67.2)	2.7 (△37.0)	7.7 (75.3)
부분품	6.6 (25.0)	6.7 (90.0)	6.2 (62.7)	4.8 (△7.3)	5.7 (1.5)	7.9 (55.2)	8.8 (28.1)	9.7 (21.2)	10.4 (21.8)	9.7 (0.2)	8.8 (9.0)	7.1 (18.4)	7.4 (11.6)

자료 : IITP, KTSPI



그림 1-7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3월 당월				1~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49.5	70.2	35.4	중국	5.8	70.2	38.5	18.3	79.2	52.4
2	베트남	29.4	-7.9	21.0	미국	2.3	111.0	15.2	3.8	-39.1	11.0
3	미국	24.5	-2.0	17.5	영국	1.2	39.2	7.9	1.4	-8.8	3.9
4	영국	5.3	36.6	3.8	독일	0.9	57.6	5.9	1.3	-1.6	3.7
5	독일	4.8	76.4	3.4	오스트리아	0.8	208.9	5.2	1.1	256.7	3.1
6	홍콩	3.8	0.1	2.7	베트남	0.7	-65.6	4.9	2.6	-64.9	7.4
7	인도	3.3	192.3	2.4	캐나다	0.5	2218.6	3.2	0.8	45.2	2.2
8	일본	2.2	9.0	1.6	네덜란드	0.4	56.1	2.5	0.7	57.9	1.9
9	프랑스	2.0	149.6	1.4	스페인	0.4	9.2	2.5	0.6	6.8	1.6
10	오스트리아	1.9	467.0	1.4	이탈리아	0.3	423.9	2.1	0.3	247.8	1.0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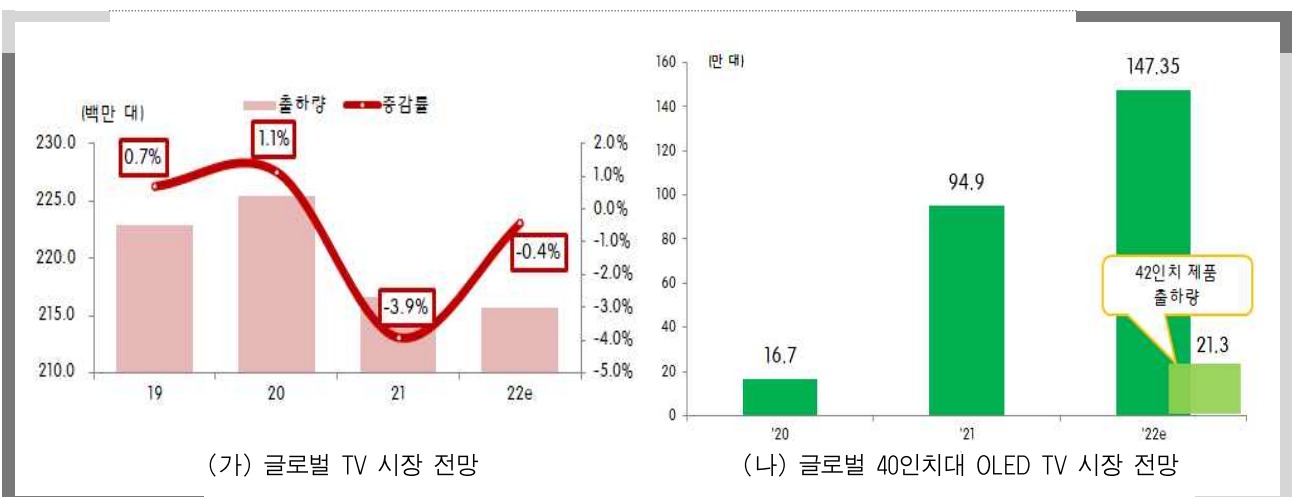
5 D-TV

1) 수출 환경

□ '22년 TV 시장은 소폭 감소할 전망, 반면 OLED TV는 고성장세 기조가 뚜렷

- (시장 전망) 올해 TV 시장(2억 1,570만 대, $\Delta 0.4\%$)은 전 세계적인 물류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하강 국면이 이어질 전망
- '20.하반기~'21.상반기 TV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홈 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 수요 분출 효과 등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21.3분기부터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수요가 한풀 꺾이는 피크 아웃 현상이 발생
- '22년은 올림픽·월드컵 등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수요 회복이 기대됐으나 여전히 높은 물류비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장기화 등으로 시장 악영향이 더해지면서 올해 TV 시장은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
 - ※ 코로나 발생 이전의 운송비는 9달러 수준(65인치 TV 기준)이었으나 '21년 50~100달러 규모로 큰 폭 증가. 이에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는 '22년 TV 시장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2억 1,700만 대에서 200만 대 축소한 2억 1,500만 대로 한차례 하향 조정해 발표('22.3월)
- 다만 글로벌 OLED TV 시장(800만 대, 23.1%↑)은 전체 시장 흐름과 달리 성장 기조를 이어갈 전망. 특히 세컨드·게이밍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40인치대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
 - ※ '22년 40인치대 OLED TV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7.35만 대 정도 출하될 것으로 관측되며 이중 약 14.5% 가량이 42인치 제품(LG전자 신제품)으로 구성될 전망

그림 1-8 | 글로벌 TV 시장 전망 및 40인치대 OLED TV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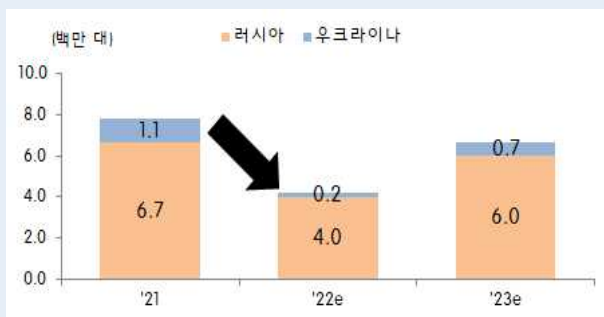


자료 : 매일경제, 1.17.(원소스 OMDIA) / 전자신문, 4.13.(원소스 OM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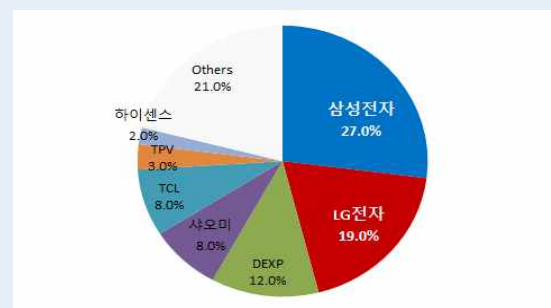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TV 시장 동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TV 시장의 침체 심화가 우려
 - 시장조사기관인 DSCC에 따르면 '21년 러시아(670만 대), 우크라이나(110만 대)의 TV 시장 규모는 780만 대 수준이었으나,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2.24일)으로 양국의 TV 수요가 하락하면서 420만 대(전년 대비 △46.2%) 규모로 급감할 것으로 관측
 - ※ 러시아 TV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우크라이나는 80%가 감소할 전망
 - 게다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가스 등의 가격 상승으로 동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지에서의 TV 출하량도 100만 대 가량 추가 하락할 것이라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러시아 TV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
 - '21년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출하량 기준, 27.0%)는 '22.3.5일 러시아 여행 전자제품 선적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패널 등의 부품 공급난 심화, 러시아 디폴트 우려 확대 등으로 '22.3.21일 칼루가 TV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
 - ※ 세계 각국이 러시아 제재 동참 등을 이유로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해 부품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러-우 전쟁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 TV 출하량 하락세는 불가피할 전망
 - 2위를 차지한 LG전자(19.0%)도 '22.3.19일 러시아행 부품 선적을 중단함에 따라 '22.3월 중순부터 부품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시일 내 동사의 루자 TV 공장 가동 중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
 - ※ 한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루자 공장 생산 물량을 폴란드 므와바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
- 글로벌 업체들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해결 및 재고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

<러시아·우크라이나 TV 시장 전망 및 러시아 TV 시장 내 업체별 점유율>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TV 시장 전망



(나) 러시아 TV 시장 내 업체별 점유율('21년 기준)

자료 : DISCIEN

□ '22년 TV 시장은 QLED TV vs OLED TV 경쟁 구도가 지속

- LG전자는 OLED TV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1위 업체인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
 - (LG전자) '20년 출시한 48인치 OLED TV에 이어 2년 만에 한층 더 작아진 42인치 'OLED evo' TV('42C2')를 국내에 先출시(4.13일). 해당 신제품은 OLED TV 라인업 중 역대 최소형 모델로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해 나갈 계획
 - 동 사는 이러한 40인치대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 구사하여 게이밍 모니터 등의 중형 TV 수요 공략과 동시에 OLED TV 시장 침투율 확대를 겨냥
 - (삼성전자) 16년 연속 글로벌 1위(매출액 기준)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는 '22년 국내 시장에 출시할 '네오 QLED', '라이프스타일' 등의 신제품 전 라인업을 공식 발표('22.3.23일)
 - ※ '네오 QLED TV' 21종(8K, 4K)과 더불어 QLED 4K 시리즈 16종, 라이프스타일 TV인 '더 프레임' 7종, '더 세리프' 4종으로 총 48종류의 라인업으로 구성
 - 다만 3.18일 글로벌 사전 판매를 개시한 QD-OLED TV는 패널 수량 부족 등으로 국내 라인업에 포함하지 않아 연내 국내 출시는 불투명. 북미·유럽 등지에 우선 출시될 전망

2) 수출 동향

□ '22.3월 TV 수출은 LCD TV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내림세

- (품목별) LCD TV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나 OLED TV와 부분품 수출 하락세가 지속 되면서 전체 TV 수출은 15.3% 감소한 0.9억 달러 기록
 - (LCD TV : 0.05억 달러, 100.7%↑) 프리미엄 제품 판매 견조, 미국(0.03억 달러, 54.6%↑)·나이지리아(12,907.0%↑) 등으로의 수출 증가로 7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유지
 - (OLED TV : 0.002억 달러, △83.6%) 폴란드(△69.7%)·영국(△96.7%) 등의 반락, 일본(△83.0%) 등의 역성장으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양상
 - (부분품 : 0.8억 달러, △17.1%) 해외 생산 거점 국가인 폴란드·인도네시아 등은 증가세이나 멕시코·베트남·브라질 등은 내림세가 지속. 한편 국내 업체의 러시아행 전자제품 선적 중단 등으로 '22.3월 對러시아 TV 부분품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74.8% 감소해 눈길
- (지역별) 폴란드·인도네시아·미국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멕시코·베트남 등은 두 자릿수 감소, 러시아의 수출 급락에도 주목
 - 유럽 지역의 핵심 생산 거점인 폴란드(0.2억 달러, 59.7%↑)는 OLED TV 판매 호조 등으로 부분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 오름세가 지속



- 북미 지역의 주요 생산 거점인 멕시코(0.2억 달러, $\Delta 56.1\%$)는 '21.12월부터 부분품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4개월 연속 하락 곡선
- 미국(0.1억 달러, $30.7\% \uparrow$)은 LCD TV($54.6\% \uparrow$)의 높은 성장세와 부분품 수출($6.0\% \uparrow$)의 반등 등으로 7개월 연속 양호한 흐름을 지속
- 러시아(0.006억 달러, $\Delta 74.8\%$)는 부분품을 중심으로 '21.7월 이후 줄곧 수출 상위 10위국 이내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월 하순부터 TV 관련 부분품 수출이 중단되면서 '22.3월 15위로 추락

※ 對러시아 TV 수출 순위 변동 : ('21.7월) 7위, (8월) 8위, (9월) 5위, (10월) 7위, (11월) 9위, (12월) 8위, ('22.1월) 8위, (2월) 8위, (3월)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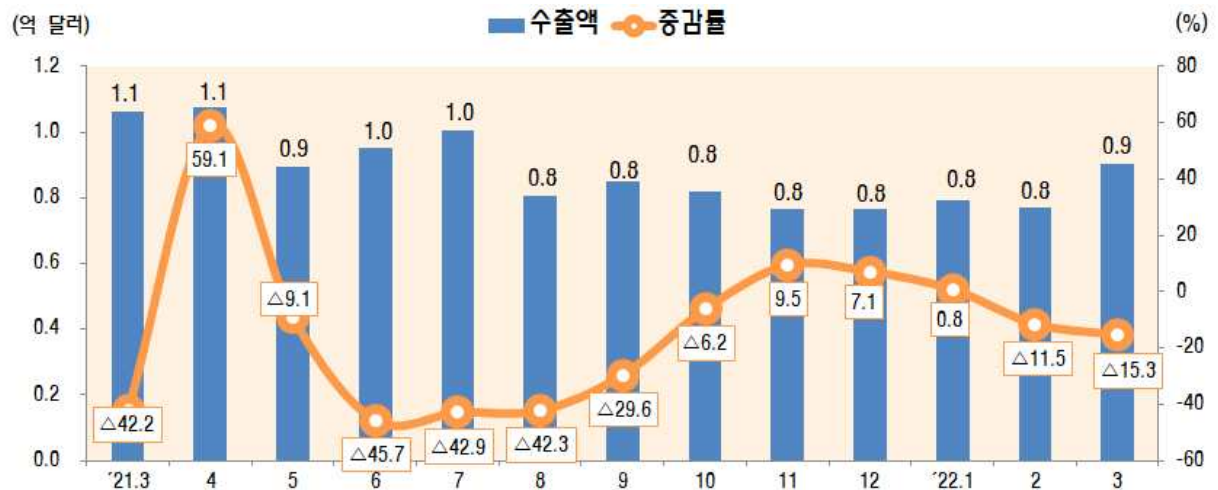
표 1-10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3	4	5	6	7	8	9	10	11	12	'22.1	2	3
D-TV	1.1 ($\Delta 42.2$)	1.1 (59.1)	0.9 ($\Delta 9.1$)	1.0 ($\Delta 45.7$)	1.0 ($\Delta 42.9$)	0.8 ($\Delta 42.3$)	0.8 ($\Delta 29.6$)	0.8 ($\Delta 6.2$)	0.8 (9.5)	0.8 (7.1)	0.8 (0.8)	0.8 ($\Delta 11.5$)	0.9 ($\Delta 15.3$)
LCD TV	0.0 ($\Delta 93.4$)	0.0 ($\Delta 88.0$)	0.0 ($\Delta 89.5$)	0.0 ($\Delta 86.7$)	0.0 ($\Delta 85.6$)	0.0 ($\Delta 82.0$)	0.0 (52.4)	0.0 (16.4)	0.0 (213.2)	0.1 (456.2)	0.0 (108.5)	0.1 (135.5)	0.0 (100.7)
OLED TV	0.0 ($\Delta 89.1$)	0.0 ($\Delta 84.3$)	0.0 ($\Delta 80.0$)	0.0 ($\Delta 92.9$)	0.0 ($\Delta 91.8$)	0.0 ($\Delta 85.9$)	0.0 ($\Delta 94.7$)	0.0 ($\Delta 96.3$)	0.0 ($\Delta 11.9$)	0.0 (189.8)	0.0 (13.5)	0.0 ($\Delta 26.9$)	0.0 ($\Delta 83.6$)
부분품	1.0 ($\Delta 24.3$)	1.0 (196.3)	0.9 (16.7)	0.9 ($\Delta 33.7$)	1.0 ($\Delta 33.2$)	0.8 ($\Delta 36.4$)	0.8 ($\Delta 25.5$)	0.8 (8.2)	0.7 (7.0)	0.7 ($\Delta 1.7$)	0.7 ($\Delta 2.3$)	0.7 ($\Delta 15.1$)	0.8 ($\Delta 17.1$)

자료 : IITP, KTSPI

그림 1-9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4.0	18.7	37.7	폴란드	0.2	59.7	26.9	0.7	53.3	27.1
2	폴란드	1.9	33.1	17.4	멕시코	0.2	-56.1	22.4	0.5	-45.2	22.3
3	베트남	1.0	-37.0	9.8	인도네시아	0.2	271.4	16.8	0.3	159.4	12.5
4	브라질	0.6	-41.1	5.8	미국	0.1	30.7	6.5	0.2	26.7	6.2
5	인도네시아	0.6	21.3	5.2	베트남	0.1	-46.2	5.7	0.2	-28.8	7.1
6	미국	0.5	10.3	4.3	브라질	0.0	-46.9	4.5	0.1	-37.6	5.1
7	이집트	0.3	-55.1	2.9	중국	0.0	106.2	2.9	0.1	114.4	3.4
8	러시아연방	0.3	-24.5	2.8	대만	0.0	1,487.9	1.7	0.0	285.8	0.9
9	인도	0.3	-50.4	2.4	포르투갈	0.0	46,927.5	1.3	0.0	5,921.8	0.5
10	중국	0.2	-34.7	2.0	슬로베니아	0.0	0.0	1.3	0.0	2,008.4	1.1

자료 : IITP, KTSPI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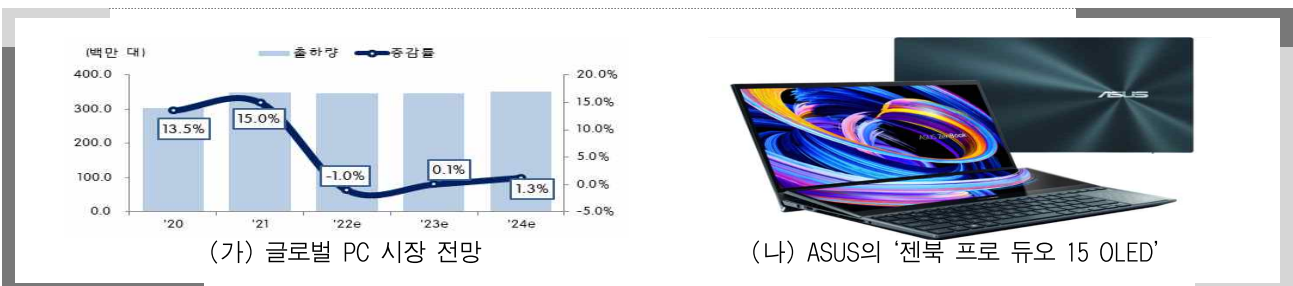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수출 환경

□ (PC) '22년 PC 시장, 지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뒤로하고 하락 전환 예상

- (시장 전망) '22년 PC 시장은 비대면 수요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IDC, '22.3월)
 - 글로벌 PC 시장(3억 4,597만 대, $\Delta 1.0\%$)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초고속 성장세를 보였으나 '22년엔 소비자용 PC 수요(1억 5,511만 대, $\Delta 3.3\%$) 감소 등으로 주춤할 전망
 - 특히 글로벌 데스크톱 PC 시장(8,646만 대, $\Delta 2.1\%$)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노트북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년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 데스크톱 PC 시장 증감률 전망(%) : ('22년) $\Delta 2.1$, ('23년) $\Delta 2.3$, ('24년) $\Delta 1.5$, ('25년) $\Delta 2.4$, ('26년) $\Delta 3.3$
- 외장 GPU 시장의 삼파전 확장 양상 속, 글로벌 업체들은 고성능 노트북을 연이어 공개
 - 기존 내장 GPU 시장에 주력했던 인텔이 처음으로 노트북용 외장 GPU '인텔 아크 3'를 출시(3.31일)해 주목. 엔비디아·AMD가 양분해오던 외장 GPU 시장에서의 경쟁 전선이 확대될 전망
 - ※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 프로2'에 업계 최초로 '인텔 아크 3'를 채택하여 인텔과의 협업 행보에 눈길. 이후 Acer, ASUS, Dell 등의 PC 제조업체들도 해당 제품을 탑재할 것으로 관측
 - 아크 3는 초박형 노트북용 'A350M'과 고성능을 지원하는 'A370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하반기에는 성능을 한층 더 높인 '아크 5', '아크 7'도 연달아 선보이며 GPU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전망
 - (Dell)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휴대성·고성능 등의 니즈를 충족하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용 PC, 경량 노트북 등 '22년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4.7일)
 - ※ 비즈니스용 노트북 래티튜드 시리즈, 비즈니스용 데스크톱 옵티플렉스 시리즈 등을 공개
 - (ASUS) 인텔 12세대 및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CPU를 탑재한 고성능 소비자용 노트북 6종을 대거 공개(3.28일)해 눈길
 - ※ 젠북 시리즈(젠북 14·14X OLED Space Edition·프로 듀오 15 OLED) 3종, 비보북 시리즈(비보북 S14·S16X·16X) 3종으로 구성

그림 1-10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신제품 이미지



자료 : IDC, 2022.3. / 언론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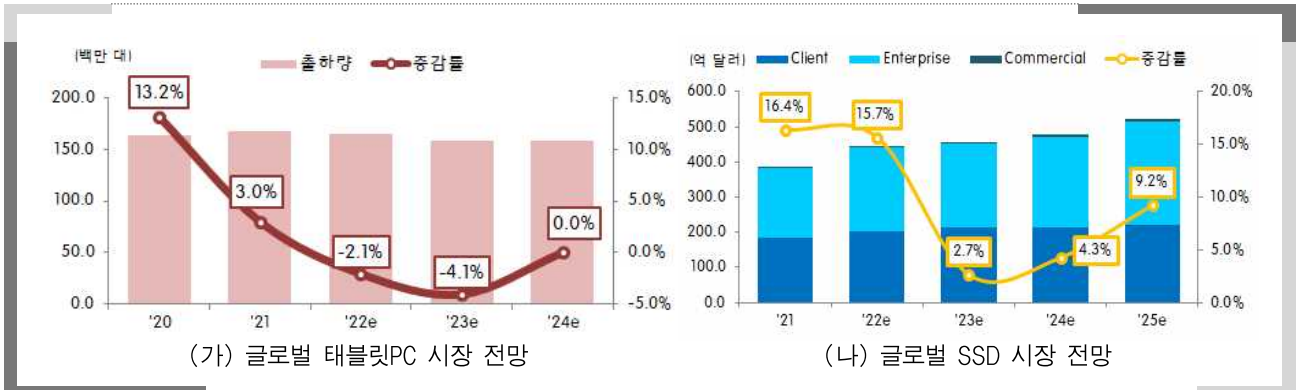
□ (태블릿PC) 코로나19 특수가 점차 둔화되면서 3년 만에 역성장 전환 전망

- (시장 전망) 전체 시장은 역성장하나 견조한 디태처블 수요 등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올해 시장(1억 6,480만 대, △2.1%)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내림세에 접어들겠지만 코로나19 이전('19년 1억 4,450만 대)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
 - (유형별) 슬레이트 제품(8,680만 대, △4.9%)은 역성장이 지속되면서 9,000만 대 규모를 하회하는 반면 키보드와 화면이 분리되는 디태처블(7,810만 대, 1.3%↑)은 상승 곡선을 이어갈 전망
 - (지역별) 아/태 지역(5,720만 대, 1.5%↑)은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미국(6,450만 대, △3.1%)과 EMEA 지역(4,310만 대, △5.1%) 등은 하락 양상을 보일 전망
- ※ 한편 Apple은 최근 출시한 '아이패드 에어 5세대(3.18일 출시)'에 이어 하반기 내로 신제품 '아이패드 프로 6세대'를 선보일 예정. 해당 제품에는 M1칩에서 한 단계 발전한 'M2' 칩이 탑재될 전망

□ (SSD) 전 세계적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SSD 시장의 수혜가 확대되면서 '22년 출하량 및 매출액은 뚜렷한 동반 상승 기조

- (시장 전망) '22년 시장은 출하량(4억 6,426만 대, 9.0%↑), 매출액(446억 달러, 15.7%↑) 모두 성장 전망(IDC, '21.12월)
 - 특히 매출액은 소비자용(203.2억 달러, 9.6%↑)·기업용(238.7억 달러, 21.4%↑) 모두 처음으로 200억 달러대를 넘어서며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이는 5G·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원활한 데이터 저장 및 사용을 위한 SSD 수요의 폭발적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 향후 5년간 SSD 시장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업체 동향) 글로벌 업체들은 MOU 체결, 사업 인수 등으로 기술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
 - (삼성전자) SSD 시장 업계 2위인 美 웨스턴디지털(WD)과 '존 스토리지(Zoned Storage)³⁾'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3.30일)해 주목.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상향평준화하고 차세대 ZNS SSD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 ※ '21.6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존 스토리지 기술을 적용한 ZNS SSD를 개발
 -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과 협업해 개발한 기업용 SSD 'P5530'을 출시(4.5일). 해당 제품은 PCIe 4세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초당 8GB 이상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
 - 기업용 SSD 시장에서 좀처럼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했던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이후 3개월 만에 기업용 신제품을 선보이는 적극 행보를 보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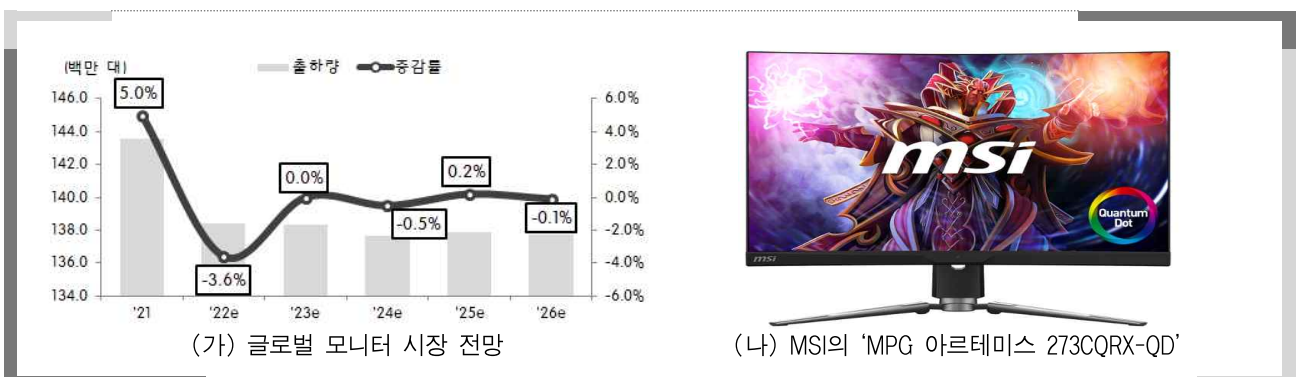
3) 존 스토리지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구역(Zone) 별로 용도와 사용주기가 같은 데이터를 분류 저장하는 차세대 기술로, 데이터센터나 엔터프라이즈의 대용량 스토리지 효율적 운영에 탁월

그림 1-11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전망 및 SSD 시장 전망


자료 : IDC, 2022.3. / IDC, 2021.12.

□ (모니터) 올해 모니터 시장(1억 3,839만 대, △3.6%)은 하락세에 접어들 전망

- (시장 전망) '18년부터 성장세를 지속했던 글로벌 모니터 시장은 '22년 반락 전망(IDC, '22.3월)
 - 올해 부분품 공급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여전한 물류 비용 문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중국 지역 등의 폐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모니터 수요가 줄어들면서 5년 만에 하락 전환할 전망
- (업체 동향) 고화질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수준 높은 기술들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출시
 - (Dell) 4.7일 울트라샤프 32인치('U3223QE'), 27인치('U2723QE') 4K 모니터를 출시. 동사가 출시한 제품 중 최초로 IPS 블랙 기술을 탑재하여 화질의 명암비, 색감 등을 강화한 점이 특징
 - (MSI)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MPG 아르테미스 273CQRX-QD'를 3.29일 출시. 해당 제품은 QD 프리미엄 컬러 기술이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WQHD 해상도의 커브드 패널(1,000R 곡률)이 탑재
 - ※ 한편 삼성전자는 PC 모니터에 스마트 TV를 더한 '스마트 모니터 M8'을 출시할 예정. 타이젠 OS를 모니터에 내장해 모니터와 TV 역할이 동시에 가능하며 와이파이 연결만으로 OTT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

그림 1-12 | 글로벌 모니터 시장 전망 및 신제품 이미지


자료 : IDC, 2022.3. / 언론 자료 인용

2) 수출 동향

□ '22.3월 수출은 주변기기 수출 호조 등으로 36.9% 증가한 17.9억 달러 형성

- (품목별) 컴퓨터 부품 수출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변기기는 SSD 수요 견조, 모니터 수출 급등 등으로 13개월 연속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성장을 견인
 - (컴퓨터 : 0.7억 달러, $\Delta 61.4\%$)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정책, 라우 전쟁 발발 등으로 물류 공급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부품 수출은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해 컴퓨터 수출도 하향세 지속
 - ※ 컴퓨터 부품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22년 이전 기준으로 중국(홍콩 포함)이 80%를 웃돌았으나 '22년 봉쇄 정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22.3월 52.5%(전년 대비 $\Delta 33.2\%$ 하락) 수준으로 크게 하락해 주목
 - (주변기기 : 17.2억 달러, $52.8\% \uparrow$) SSD 수출의 양호한 흐름 등이 지속되며 주변기기 수출은 13개월 연속 상승. 프린터 수출 반등과 더불어 모니터 수출의 3개월 연속 세 자릿수 성장세도 눈길
- (지역별) SSD 수출을 중심으로 주요 교역국(중국·미국 등) 수출은 우상향세가 지속
 - 중국(홍콩 포함, 6.8억 달러, $39.6\% \uparrow$)은 컴퓨터 부품 수출(0.2억 달러, $\Delta 84.6\%$)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SSD 수출(6.1억 달러, $87.9\% \uparrow$)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오름세
 - 미국(4.9억 달러, $24.9\% \uparrow$)은 SSD 수출(4.2억 달러, $34.2\% \uparrow$) 호조, 모니터(0.4억 달러, $56.0\% \uparrow$) 수요 증가 등으로 11개월 연속 성장 기록

표 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3	4	5	6	7	8	9	10	11	12	'22.1	2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1 (6.7)	11.2 (3.4)	13.3 (9.8)	14.9 (18.1)	15.5 (28.2)	16.9 (26.6)	19.2 (49.1)	14.8 (48.5)	17.8 (70.8)	16.6 (43.5)	15.3 (54.3)	15.8 (47.8)	17.9 (36.9)
컴퓨터	1.8 (21.5)	1.6 (8.8)	2.0 (14.2)	1.9 (9.3)	2.1 (4.5)	1.8 (5.1)	2.0 ($\Delta 0.3$)	2.1 (16.6)	2.2 (10.6)	2.4 (12.8)	1.0 ($\Delta 40.0$)	0.8 ($\Delta 49.2$)	0.7 ($\Delta 61.4$)
부품	1.5 (36.3)	1.3 (3.5)	1.7 (13.9)	1.6 (13.0)	1.8 (10.5)	1.5 (4.5)	1.6 ($\Delta 5.8$)	1.7 (16.3)	1.8 (8.0)	1.8 (9.3)	0.6 ($\Delta 59.4$)	0.4 ($\Delta 69.2$)	0.4 ($\Delta 74.8$)
주변기기	11.3 (4.7)	9.5 (2.6)	11.4 (9.1)	13.0 (19.5)	13.4 (32.9)	15.1 (29.8)	17.3 (58.0)	12.8 (55.3)	15.6 (85.0)	14.2 (50.4)	14.4 (72.7)	15.0 (63.8)	17.2 (52.8)
보조기 장치	9.2 (7.6)	7.5 ($\Delta 8.8$)	9.7 (1.0)	11.1 (14.4)	11.2 (33.3)	13.6 (33.0)	15.3 (61.6)	10.9 (59.8)	13.9 (102.5)	12.3 (54.3)	12.1 (71.1)	13.2 (69.2)	14.2 (54.9)
프린터	0.4 (27.0)	0.4 (16.7)	0.4 (79.6)	0.4 (43.7)	0.4 (22.6)	0.3 ($\Delta 13.7$)	0.3 ($\Delta 12.4$)	0.3 ($\Delta 9.5$)	0.3 ($\Delta 3.7$)	0.4 (6.3)	0.4 (15.5)	0.3 ($\Delta 0.2$)	0.4 (17.8)
모니터	0.6 ($\Delta 21.6$)	0.5 (19.4)	0.5 (91.1)	0.6 (77.5)	0.7 (75.4)	0.6 (54.7)	0.7 (68.7)	0.7 (69.7)	0.8 (63.2)	0.9 (63.3)	1.3 (191.9)	1.0 (111.6)	1.2 (119.2)

자료 : IITP, KTSPI



그림 1-1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56.8	25.3	32.7	중국	5.2	36.8	28.8	12.0	20.4	24.4
2	중국	44.8	8.9	25.8	미국	4.9	24.9	27.2	14.7	54.2	30.0
3	홍콩	19.1	52.4	11.0	홍콩	1.7	49.2	9.3	5.3	79.8	10.8
4	일본	5.6	11.5	3.2	일본	1.1	38.6	6.2	1.9	22.2	3.9
5	대만	4.9	52.1	2.8	대만	0.7	51.1	4.1	1.7	37.7	3.4
6	네덜란드	4.7	58.3	2.7	네덜란드	0.6	111.3	3.5	2.2	153.8	4.6
7	멕시코	4.7	35.4	2.7	멕시코	0.5	2.9	2.8	1.1	-12.2	2.3
8	싱가포르	4.3	106.0	2.5	베트남	0.4	147.2	2.2	1.1	198.2	2.2
9	아일랜드	4.2	94.9	2.4	영국	0.4	569.9	2.1	0.4	275.4	0.9
10	독일	2.8	7.3	1.6	독일	0.3	38.6	1.6	0.8	59.7	1.7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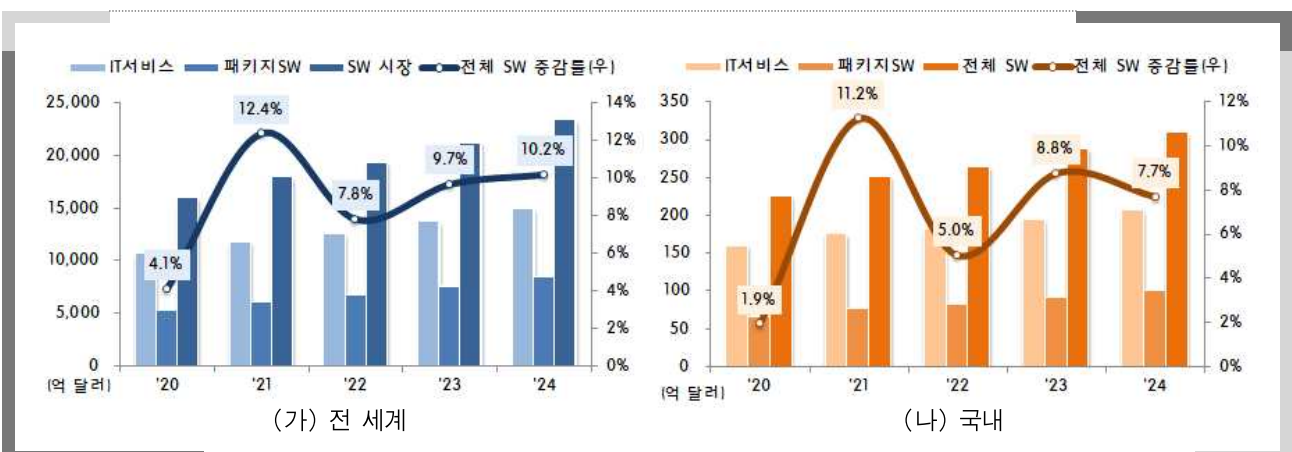
7 SW

1) 수출 환경

□ 디지털 전환 움직임 속에 따른 글로벌 및 국내 SW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시장 전망) '22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패키지SW와 IT서비스가 동반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7.8% 증가한 1조 9,400억 달러가 예상(Gartner, '22.3월)
 - IT서비스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등하면서 6.8% 증가한 1조 2,651억 달러가 예상되며, 패키지SW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시스템 인프라 SW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9.8% 증가한 6,749억 달러로 전체 시장을 견인할 전망
 -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일부 지역에서의 수요 위축으로 성장세는 '21.12월 전망치 (1조 9,515억 달러, 9.0%↑) 대비 1.2%p 하향조정
- (국내 시장) IT서비스 성장세 지속과 패키지SW 증가세 확대 등으로 '22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0% 늘어난 265억 달러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Gartner, '22.3월)
 - 비대면 환경 구축 및 자동화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업들의 SW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 SW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SW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되는 양상
 - IT서비스는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3.6% 증가한 182억 달러가 예상되며, 패키지SW는 기업 내 협업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8.3% 증가한 83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그림 1-14 전 세계 및 국내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2.3.



□ 국내 IT서비스 업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클라우드·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역량을 강화

- 삼성SDS는 클라우드 및 물류 수출입 플랫폼 강화, LG CNS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5G 특화망 사업 확대, SK C&C는 다양한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발굴에 사활

표 1-14 |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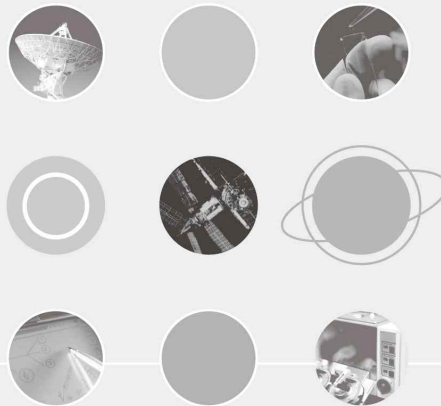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로의 사업 체제 전환과 더불어 클라우드, 물류 플랫폼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 -3.16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황성우 삼성SDS 대표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올해 컨설팅, 구축, 운영 등을 아울러 클라우드 사업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강조 -클라우드 부문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관리 사업(MSP)에 집중해 대외 사업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으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클라우드 전문가 확보를 추진 -또한 물류 분야에서는 IT 신기술 기반 물류 플랫폼인 '첼로스퀘어'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며 올해 상반기 중국, 동남아시아 진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서비스와 5G 특화망 등 신규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 추진 -3.24일 주주총회를 열고 '데이터 관련 사업'과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디지털 전환 서비스 및 5G 특화망 사업에 박차 ※5G 특화망은 공장, 건물 등 특정 범위에서 5G 통신망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네트워크 -한편 LG CNS는 '21.9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분허가'를 획득했으며 3.15일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하루조각'을 출시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 '하루조각'을 시작으로 향후 헬스케어·통신·유통 등 여러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하루조각'은 이용자의 휴대폰 내 각종 데이터를 모아 일상을 자동으로 기록·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과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는 등 5G 특화망 사업도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국방·스마트공장 등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디지털 혁신사업을 확대 -MSP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멀티클라우드 전문성을 높이고, AI뇌출혈 영상판독 솔루션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 제조업 특화 데이터 처리 엔진인 '아이팩토리 디플로' 등 산업 분야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 -특히 글로벌 CDN 서비스 기업 클라우드플레이어와 'Cloud Z 기반 시큐어 CDN 서비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4.7일)하고 디도스(DDoS) 공격은 물론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엣지 생성 데이터 보안까지 한 번에 챙기는 클라우드 시큐어 씨디엔(Cloud Secure CDN)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은 웹 콘텐츠, 음악, 게임, 동영상부터 각종 SW와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온라인과 앱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또한 4.11일에는 서울테크노파크와 서울 지역 중소, 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서울형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과 보급, 서울 지역 스마트공장 수요 기업 발굴 등 서울 지역 특성에 맞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II

트레이드 GPS



Ⅱ 트레이드 GPS⁴⁾

1 미국 - 가정용전기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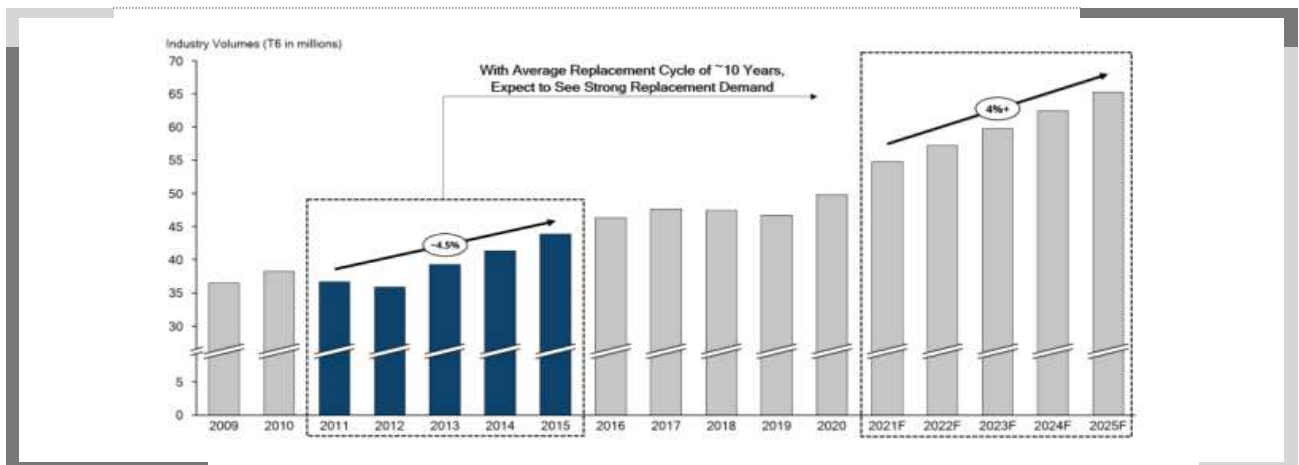
□ 미국 가정용전기기기 시장은 환경 변화, 교체 수요, 경기 회복 등으로 증가가 기대

- 미국 가정용전기기기 수요는 가전 교체 주기 도래, 재택 시간 증가, 현지 주택 경기 회복, 스마트홈 시장 성장 등에 힘입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교체 주기 도래) '11~'15년에 성장기를 거쳤던 미국 내 가전 수요가 최근 교체 주기(10년)에 진입함에 따라 '21년부터 연평균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

※ '11~'15년 당시 가전제품의 연평균 출하 성장률은 4.5%에 달했으며, 통상 10년인 가전의 내용 연수를 바탕으로 추정된 교체 주기를 감안했을 때, '21~'25년 출하 성장률은 4% 이상일 것으로 전망

그림 2-1 미국 가정용기기 교체 주기 추정



자료 :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원소스 Whirlpool), 2021.12.

- (홈코노미⁵⁾ 시대)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개념이 확장된 가운데 개선된 가정 내 환경 구축을 위한 신규 가정용기기 수요가 증가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렸던 수요 분출 효과,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디자인 특화 가전 출시 등이 맞물리면서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주택 경기 회복) '21년 미국 주택 판매량은 저금리, 주식시장 호황,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주택 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미국 주택경기가 호황세에 진입하면서

4)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5) 홈코노미는 홈(home)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집이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닌 휴식, 여가,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이르는 용어

미국 내 가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2년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예고 및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둔화되나 주택 구매 수요는 지속되면서 관련 수요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

그림 2-2 미국의 연간 기존주택 판매량 및 주택시장 전망



주 : 주택 판매량은 신규·기존주택 판매량으로 월간 계절 조정치의 분기별 평균값(연율)이며 가격 증가율은 프레디맥의 주택 가격 인덱스의 분기별 통계치(계절 조정치, 연간 데이터는 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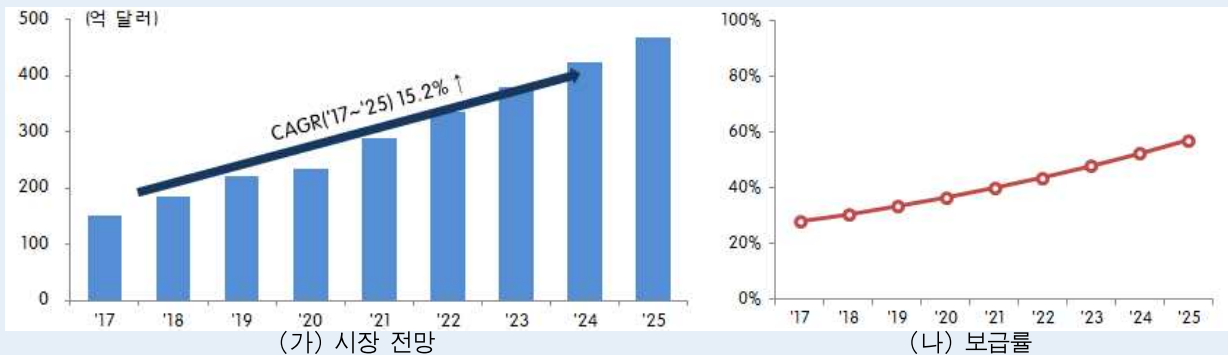
자료 : KOTRA 재인용(원소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 WSJ / Freddie Mac), 2022.2.

- (스마트홈) 미국 스마트홈 시장이 연평균('17년~'25년) 15% 이상 성장함에 따라 IoT 및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가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

○ (미국 스마트홈 시장) '17년 151.1억 달러 규모 수준이던 미국 스마트홈 시장은 연평균 15.2%씩 증가해 '25년에는 46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Statista, '21.7월)

- '17년 이후 20% 대의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던 미국 스마트홈 시장은 '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5%대의 성장세로 둔화했으나 이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특히 '22년에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
- 미국 스마트홈 보급률은 '17년 30%대를 하회했으나 이후 지속 확대되면서 '21년 40%대를 넘어섰으며 '25년에는 60% 수준으로 늘어나 시장 주류로 자리 잡을 전망

< 미국 스마트홈 시장 및 보급률 추이 >




자료 : Statista, 2021.7.

□ 국내 가전 업체는 현지 수요에 대응해 디자인 요소 및 IoT 기능 강화 전략을 확대

- **(’22.1분기 실적)** 국내 기업이 글로벌 가전 시장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등 프리미엄 가전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유효하면서 국내 가전 기업의 실적이 확대
 - LG전자는 ‘고효율 대용량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을 북미 등 선진 시장에서 지속 출시하면서 차별화를 도모한 가운데 비대면 환경 전환에 따른 채택시간 증가로 디자인 특화 가전이 선전하면서 ’22.1분기 생활가전 매출이 7조 7,600억 원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 1위를 기록
 - 기존 가전 시장 선두자리를 수성하던 월풀은 ’21년 LG전자에 밀려 2위로 떨어졌으며 ’21.4분기 1위 자리를 탈환했으나 ’22.1분기 약 6조 4,103억 원(53억 2,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다시 2위로 추락. ’22.1분기 LG전자와 월풀의 매출 차이는 약 1조 3,500억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
 - 삼성전자는 TV·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전(CE) 부문 매출은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15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7,000억 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
- **(국내 업체 동향)** ‘CES 2022’에서 AI·IoT 등 기능을 강화한 가전제품을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체험공간을 구성한 가운데 향후 디자인 특화 가전 출시, 초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 생산라인 증설 등 현지 시장 공략에 총력

표 2-1 | 국내 가전 업체의 가정용전기기기 시장 전략

업 체	내 용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특화 가전) 미국에서 ‘비스포크(BESPOKE)’ 가전 라인업을 확대하며 현지 공략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분기 미국 시장에 1도어, 상냉장·하냉동, 4도어 등 비스포크 냉장고를 도입해 현지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데 이어, ’22.1분기에는 4도어(프렌치도어), 3도어, 패밀리허브 등 3가지 모델을 추가로 공개 - 또한 ’21.하반기에 냉장고를 포함해 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된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 무선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등 리빙 제품으로 라인업을 추가해 총 24 종의 ‘비스포크 홈’을 확대해 나날 예정 - 더불어 ‘모닝 블루’, ‘이브닝 코랄’ 등 5가지 색상을 신규로 도입해 총 19가지 색상의 패넬을 운영할 계획 • (CES 2022) 비스포크 가전 및 IoT,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환경에 맞춘 공간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취향에 맞춰 외관 소재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비스포크 제품을 중심으로 ‘비스포크 홈’ 전시관을 구성.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해진 냉장고 라인업과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를 전시 - 이에 더해 IoT와 AI에 기반한 ‘팀삼성’ 존을 설치하며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으로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삼성’은 차별화된 AI·IoT 기술을 기반으로 선보이는 삼성전자의 활동으로 가전에서 모바일까지 다양한 기기를 ‘스마트싱스’로 연결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개념 • (초프리미엄 가전) 올해 비스포크 최상위 라인에 ‘인피니트’ 라인을 전격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피니트 라인은 냉장·냉동·김치·와인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1도어 냉장고와 대용량 4도어 냉장고, 오븐, 인덕션, 스마트후드,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와인냉장고·스마트후드 제품을 추가해 ‘프리미엄 키친’ 분야로 초고소비층을 공략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특화 가전)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융복합 가전 ‘오브제 컬렉션’ 제품군을 총 21종으로 확대하고 색상 추가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는 계획 - LG 오브제 컬렉션 제품군은 위시타워·스타일러·청소기·에어컨·냉장고·올레드TV 등 총 21종으로 컬러는 16종으로 구성되며 미국 팬톤컬러연구소와 협업해 가전 오브제 컬렉션에 ‘스톤 클레이 핑크’·‘스톤 실버’

	<p>등 신규 색상을 추가했으며 냉장고에서 다른 제품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p> <p>-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꾸준히 새로운 기능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 하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화하는 'UP가전'을 공개.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얼음정수기냉장고 에어로타워, 휘센타워 등 6종부터 시작해 올해 약 20종의 제품군에서 UP가전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p> <p>-한편 LG전자는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에서 드럼, 통돌이, 교반식 등 세탁기 전 부문, 프렌치도어, 상냉장·하냉동 제품군 등 프리미엄 냉장고 부분 등에서 1위를 석권해 현지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p> <p>• (CES 2022) 오브제 컬렉션, AI 제품을 활용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LG 홈, 오브제 컬렉션 LG 홈 (LG Home by Objet Collection), LG 씽큐(LG ThinQ) 등 3가지 온라인 전시관을 마련해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제품과 솔루션을 대거 공개</p> <p>• (생산 설비 확대) 미국 주택시장 호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효과 등으로 크게 늘어난 가전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현지 설비 투자를 확대</p> <p>-'21.4월 미국 테네시 세탁기 공장에 2,050만 달러를 투입해 생산라인을 증설. 대지 면적 125만㎡에 연면적 7만 7,000㎡ 규모인 테네시 공장은 연간 120만 대 이상의 제품을 생산</p> <p>-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급증한 미국 가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1.8월부터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생활가전의 현지 생산라인을 기존 주간 생산체제에서 주·야간 생산체제로 확대 운영하는 등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주요 생활가전의 생산라인을 풀가동</p> <p>• (초프리미엄 가전) 미국 시장에서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신규 사업으로 삼고, 브랜드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p> <p>※'21년 미국 시장에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매출 성장률은 208%로 전체 가전(약 14%) 대비 급등</p>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미국 가정용전기기기 수출은 현지 경기 회복 및 교체 수요 등이 맞물리며 고성장세 지속

- **(누적)** 對미국 가정용전기기기 수출은 재택시간 증가와 더불어 교체 주기 도래, 현지 주택경기 회복 등으로 가정용전기기기, 특히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22.1분기에도 45%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
 - '18년 4.4%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국내 업체의 프리미엄 전략 확대 및 비대면 환경 확대를 배경으로 IoT 기능 탑재 가전 수요 증가 등으로 점차 회복되면서 '19년 두 자릿수 성장세로 반등한 이후 '21년에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한 32.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
 - '22.1분기에도 현지 주택경기 회복, 수요 분출 효과 등을 겨냥해 국내 기업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조한 프리미엄 라인 출시가 유효하면서 45.5% 증가한 9.1억 달러를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연간으로도 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월별)** 국내 기업의 프리미엄 제품 흥행 등 수출은 '20.6월 이후 22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봉쇄 조치로 '20.4~5월 수출이 부진했으나 이후 단계적인 조치 해제로 현지 시장이 점차 회복되면서 '21.2월부터는 월 수출 2억 달러대 이상의 실적을 지속하고 있으며 '21.10월에는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 '22.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8% 증가한 3.3억 달러로 22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가정용전기기기 수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냉장고(2.1억 달러, 14.7%↑)와 더불어 가정용 화전기기(0.8억 달러, 150.7%↑)가 급등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



그림 2-3 | 對미국 가정용전기기기 누적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2 | 對미국 가정용전기기기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3	4	5	6	7	8	9	10	11	12	'22.1	2	3
가정용 전기기기	241.3 (39.8)	243.0 (62.0)	285.9 (97.8)	291.3 (64.6)	312.3 (52.5)	255.3 (28.2)	265.3 (1.7)	342.6 (42.2)	333.2 (45.3)	282.0 (36.8)	305.4 (63.4)	279.8 (41.8)	325.2 (34.8)
냉장고	183.3 (50.4)	179.0 (56.2)	216.4 (94.9)	219.0 (74.0)	237.7 (69.6)	195.4 (32.5)	192.8 (△0.8)	260.5 (49.4)	248.8 (50.0)	195.8 (30.4)	185.8 (33.8)	162.1 (9.3)	210.3 (14.7)
가정용 회전기기	31.9 (8.9)	37.5 (92.6)	44.2 (160.9)	40.9 (46.4)	41.0 (27.5)	31.7 (17.7)	39.9 (7.8)	49.5 (26.0)	49.3 (35.8)	53.7 (68.4)	87.8 (245.1)	81.4 (181.7)	80.0 (150.7)
세탁기	7.5 (23.8)	7.0 (63.5)	6.1 (195.3)	6.6 (32.2)	5.7 (△29.3)	5.6 (33.5)	5.6 (5.5)	6.0 (△36.0)	5.5 (△7.4)	7.0 (△13.9)	30.7 (388.4)	38.3 (573.3)	38.9 (417.8)
에어컨	5.4 (△6.8)	11.1 (140.0)	11.0 (359.3)	9.4 (195.7)	8.1 (104.5)	3.2 (△15.5)	3.2 (△26.9)	9.6 (135.0)	8.1 (56.4)	8.8 (89.7)	11.9 (179.6)	8.6 (11.5)	7.7 (43.9)
전기 청소기	0.7 (△83.1)	0.8 (△75.9)	0.2 (△90.3)	0.1 (△95.2)	0.4 (△92.2)	0.5 (△89.0)	0.6 (△88.3)	1.1 (△76.5)	0.8 (△79.7)	1.5 (574.6)	1.7 (0.3)	0.5 (△72.4)	0.1 (△79.6)
식기 세척기	15.6 (33.7)	15.8 (168.8)	23.2 (152.0)	20.8 (37.6)	22.8 (83.1)	18.8 (52.2)	25.3 (46.7)	28.1 (86.4)	32.3 (94.7)	33.7 (120.0)	27.5 (153.1)	24.0 (124.9)	19.5 (24.9)
기타 회전기기	2.7 (59.9)	2.8 (120.0)	3.7 (227.0)	3.9 (104.2)	4.0 (92.1)	3.7 (50.8)	5.2 (10.0)	4.6 (△22.5)	2.7 (△44.9)	2.6 (△25.5)	8.3 (251.6)	3.8 (21.8)	6.4 (135.0)
난방 및 전열기기	19.1 (21.0)	21.0 (162.9)	19.0 (129.0)	22.5 (66.1)	24.4 (25.8)	20.1 (34.1)	22.7 (23.3)	23.7 (22.4)	26.1 (33.0)	24.1 (38.3)	22.3 (33.7)	27.6 (98.0)	23.5 (23.0)
기타 가정용기기	7.0 (25.0)	5.5 (△30.4)	6.3 (△23.7)	9.0 (△7.3)	9.2 (△29.7)	8.1 (△17.6)	9.9 (△9.0)	8.9 (11.7)	9.1 (18.6)	8.5 (25.3)	9.5 (58.9)	8.6 (40.1)	11.4 (63.5)

자료 : IITP, KTSPI

Ⅱ 트레이드 GPS⁶⁾

2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 해저케이블을 중심으로

□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저케이블에 주목

-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데이터 사용량 급증 등으로 전선 및 케이블 시장은 성장 가도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 기조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 특히 해상 풍력,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송전용 케이블 수요가 우상향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IT기기 사용 증가, 5G 시장 확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원활한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케이블 설치도 증가
 - ※ 한편 이전에 사용되던 구리선 대비 광케이블은 전송 손실이 낮은 장점으로 장거리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용량 데이터 전달이 가능해 수요 성장세가 견조. 글로벌 광케이블 시장은 '22년 899.1억 달러(35.1%↑)에서 '26년 2,275.4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26.1%↑)에 이를 전망(ReportLinker, '22.3월)
 - 이에 따라 글로벌 전선 및 케이블 시장은 '22년 2,002억 달러(10.5%↑)에서 '29년 3,947억 달러 (CAGR 5.7%↑) 규모로 성장할 전망(Fortune Business Insights, '22.3월)
- 특히 해저에 설치돼 통신용·전력용으로 활용되는 해저케이블에 눈길
 - 해저케이블은 대륙-대륙 또는 육지-섬 등과 같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두 지점 이상의 해저에 부설된 것으로, 크게 통신용(광케이블)과 전력용(송전용 케이블)으로 구분
 - (통신용)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의 경우 전송할 수 있는 트래픽이 한정적인 반면 유선 통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
 - 이로 인해 대륙-대륙, 국가-국가 간 원활한 데이터 교류를 위해 해저에 약 460개가량 설치되어 있는 해저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과 모바일 트래픽 95% 이상을 담당(Atlantic Council)
 - ※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은 기후나 지형적 원인 등으로 끊기거나 멈추는 일이 있으나 해저케이블을 통한 트래픽 전달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점이 장점. 이로 인해 현재 인공위성 트래픽은 1%에 불과
 - 또한 통신용 해저케이블은 주로 광섬유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 각국 간의 데이터(인터넷·통신) 전송 시 매우 빠른 속도로 손실 없이 정보 전달이 가능한 점이 특징
 - 4차 산업 기술 발달에 따라 5G,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륙 간 해저케이블 설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

6)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전력용) 육자-섬, 해상풍력발전기-육지 간 전력을 이동시켜 주는 역할로 최근 각국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지 구축이 늘어나면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송전하기 위한 케이블 수요가 확대
- 이로 인해 전 세계 통신용·전력용 해저케이블 시장은 '20년 133억 달러에서 '26년(연평균 성장률 14.3%↑) 308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관측(ReportLinker, '21.10월)

○ (참고) 해저케이블 설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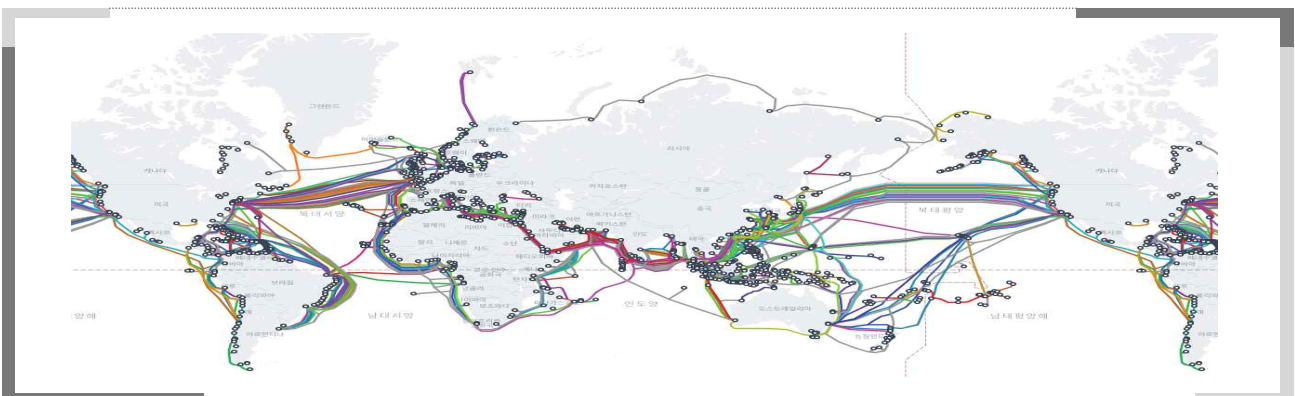
- 해저케이블은 무인 로봇, 케이블 쟁기 등을 이용해 바다 땅바닥 부분을 3m 가량 관 뒤 배에 싣고 있던 해저케이블을 내려 매설한 후 콘크리트로 매우는 방식으로 매우 고난이도의 작업
 - ※ 세계에서 활동 중인 해저케이블 설치용 선박은 약 40척에 불과하며 장비 또한 고가인 것으로 분석
- 또한 육지와 달리 해저면에 설치하게 돼 직접 볼 수도 없고 지진, 파도, 물고기, 수압, 어선, 군사 활동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설치 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
- 한편 단점으로는 해킹·도청 등의 보안에 취약하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
 - ※ 과거 동축 케이블의 경우 부분 수리가 가능했으나 광섬유 케이블은 특성상 부분 수리가 불가하며 통째로 교체만 가능

<해저케이블 설치 예시>



자료 : 언론 자료 재인용

그림 2-4 | 해저케이블 설치 현황



자료 : Submarinecablemap.com

□ IT 업체들의 인프라 확대,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등은 해저케이블 수요를 촉진

- **(통신용)**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트래픽 용량 증가, 데이터 전송 속도 제고 등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해저케이블 설치 투자를 단행하며 인터넷 인프라 확대에 주력
 - (구글) '19.4월 칠레-미국LA 사이에 설치한 10,000km가량의 해저케이블 '퀴리(Curie)' 개통에 이어 '20.7월 미국-영국-스페인을 연결하는 'Grace Hopper('22년 가동 예정)' 시공 계획을 발표
 - '21.2월 트래픽이 높은 경로 중 하나인 미국-유럽을 잇는 '뒤낭(Dunant)' 개통도 완료하였으며 '21.6.9일 미국-아르헨티나를 연결하는 '퍼미나(Firmina)' 건설 계획도 발표
 - 게다가 '21.8월 남미 지역에 이어 아시아 지역의 서비스도 품질을 높이고자 싱가포르-일본-괌-필리핀-대만-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Apricot('23년 완공 예정)' 구축 계획도 발표
 - ※ 구글이 현재까지 설치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는 총 20개 수준(Submarinenetwork)
 - (메타) '17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미국-스페인을 잇는 해저케이블 'Marea'를 완공한 데 이어 '20.5월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연결하는 '투아프리카('24년 완공 예정)'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 ※ 특히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 1/4만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 인프라가 가장 떨어지는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케이블 설치가 완공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케이블(4만 5,000km 이상)이 될 예정
 - (구글&메타) 인도네시아-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북미를 연결하는 '비프로스트(Bifrost)', '에코(Echo)' 2개의 해저케이블 포설 계획을 발표('21.3.29일). 2년 내 완공을 목표로 제시
 - ※ 비프로스트는 인도네시아 텔린과 싱가포르의 케펠이 참여하여 '24년 완공할 예정이며, 에코는 인도네시아 XL 약시아타와 함께 건설해 '23년 완공 예정. 특히 에코는 미국-인도네시아를 최초로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로 주목

- 한편, 해저케이블은 정보 탈취·차단 등에 악용될 우려가 존재해 국가 경제·안보에 민감한 만큼 미·중의 해저케이블 경쟁도 확대될 조짐
 - 미국·일본·호주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해 해저케이블 협력 강화를 약속('21.4.19일). 현재 3국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어 이를 견제하고자 미·일·호는 협력 강화를 도모
 - '21.12.18일 美 법무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구글과 메타가 '태평양 초고속 광케이블망(PLCN)'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허가권 부여를 권고
 - ※ 다만 '20.6월 美 법무부는 중국의 정보 탈취를 우려해 미 FCC에 PLCN 구간에서 홍콩 지역 제외를 권고한 바가 있어 두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메타는 미국-필리핀, 구글은 미국-대만 구간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
 - 중국은 '제14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21~'25년)'에 남중국해·동중국해 각각에 두 개의 해저 광케이블을 건설할 것이라 발표. 또한 해저케이블 건설·유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유지 전문용 선박 2척도 추가 건조하겠다고 밝혀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양국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



- **(전력용)**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미국·유럽·대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확대되면서 전력 전송용 해저케이블 수요가 촉진될 전망
 - (유럽연합) '20.11월 발표한 EU해양재생에너지전략에 따르면 '50년까지 해상풍력설비용량 300GW 달성('21.3월 기준 12GW), 전체 전력 공급 內 해상풍력 비율 30% 제고 등을 목표로 제시
 - ※ '19년 벨기에는 영국과 함께 총 6억 유로를 투자해 세계 최초 양국 간 전력 인터커넥터 구축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140km 길이의 해저 전력망을 완공. 이어 덴마크와도 '30년까지 600km 해저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OU를 체결('21.2월)
 - 목표 달성을 위해 역내 전력망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만큼 국가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토대로 관련 규제 및 지침 등을 개정해 해상하이브리드 프로젝트(해상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1개국 이상으로 송전) 등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
 - 한편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앞당기는 추세. 해상풍력 시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30년까지 해상풍력 생산량 30GW 규모 조성을 목표로 제시. 이어 '21.5월 美 정부는 메사추세츠 연안에 해상풍력발전기 84개(약 800MW 생산) 건설 사업을 최종 승인
 - 또한 美 내무장관은 '풍력발전 산업 콘퍼런스('21.10.13일)'에서 '25년까지 멕시코만, 메인만, 대서양 중부 연안, 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캘리포니아·오레곤 연안 등지의 바다를 풍력 발전사에 임대할 것이라 발표하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
 - (대만) '2025 에너지전환' 정책을 바탕으로 '25년까지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해 설비용량, 발전량을 각각 5,738MW, 207억kWh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 '26~'35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총 15GW 규모 수준으로 늘릴 계획

표 2-3 **유럽 국가들의 해상풍력 관련 동향**

국가	주요 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 목표를 기존 '50년에서 '35년으로 앞당길 것이라 발표. 해상풍력 설비용량도 '30년까지 30GW, '45년 70GW 도달을 목표로 제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14GW 수준인 영국은 '30년 40GW, '50년 100GW 달성을 목표. 다만 러-우 사태로 '50년 목표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 • '30년까지 1GW 설비용량을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전력 수급 계획도 발표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누적 해상풍력 설치 목표를 10.7GW→21.4GW로 두 배 확대 예정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누적 해상풍력 설치 목표를 5.7GW→8GW로 상향 조정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km 떨어진 바다 위에 인공섬을 지어 수백 개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10GW급 발전 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해저케이블 시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업체들은 사업 수주 및 설비투자 등에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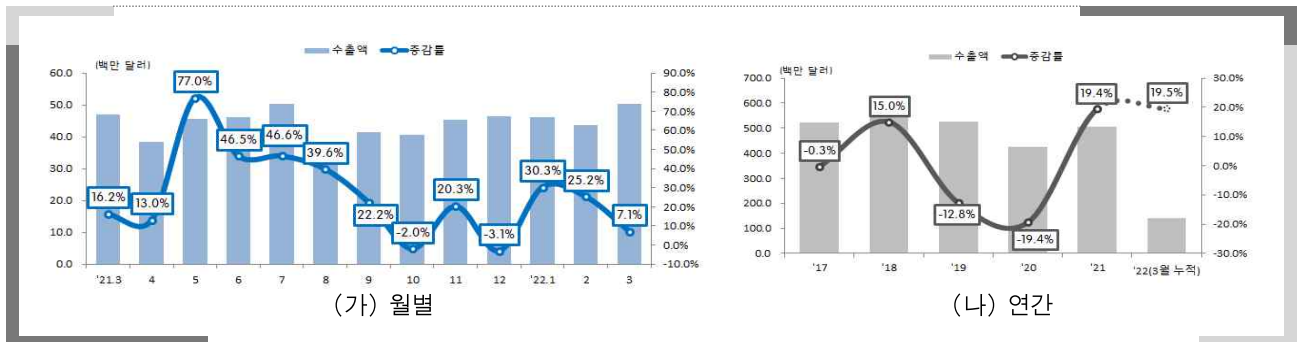
- 글로벌 업체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저케이블 시장, 국내 업체도 경쟁 전선에 합류
 - ※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은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프랑스 넥상스, 일본 스미토모, 한국 LS전선 등이 독점
 - (프리즈미안) 美 알래스카 남동부에 2개의 광섬유 해저케이블을 공급하는 2,000만 달러 규모의 ‘Sealink’ 프로젝트 계약 체결에 성공. 미국 시장으로도 입지를 확대해나가는 양상(’22.3.31일)
 - (넥상스) ’18.12월 그리스 키클라데스 제도를 연결하는 ‘턴키’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수주. 그리스 라브리온과 시로스 섬을 연결하는 1.11억 유로 상당 규모의 프로젝트로 눈길
 - 이와 함께 필리핀에서 1억 유로 규모의 해저케이블 수주에도 성공하며 심해 케이블 포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장악력 확대에 박차
 - (스미토모) ’21.3분기 NEC(일본 통신·전자기기 종합회사)와 함께 차세대 광섬유 32개를 적용한 해저케이블 멀티코어 개발에 성공. 해당 제품은 데이터 전송량을 이전 대비 4배 확대한 수준으로 6G 산업 활성화 촉진이 기대되며 ’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
 - (LS전선) 현재까지 발주된 대만 해상풍력단지 사업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석권하며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수주액 달성. 대만을 거점으로 북미·동남아시아까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
 - ※ 대만은 ’26~’35년까지 총 15GW의 해상풍력단지 추가 개발을 추진 중인 상황
 - 게다가 ’22.1월 북미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3,54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도 얻어내, 수요 증가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3,207억 원을 설비투자에 투입기로 결정
 - ※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21.하반기부터 동해 제2 사업장에 1,859억 원을 들여 해저케이블 추가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

□ (수출 동향) 탄소 중립 정책, 데이터 사용량 급증 등으로 해저케이블 수요가 확대 되면서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 수출이 호조

- (전체) ’22.3월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 수출은 8개월 만에 5,000만 달러대를 재돌파
 - (월별) ’21.3월(4,703만 달러, 16.2%↑) 수출은 동축케이블 및 기타 동축도체 수출 반등으로 상승 전환한 데 이어 ’21.5월(4,570만 달러, 77.0%↑)도 절연전선(1,234만 달러, 186.0%↑) 등의 세 자릿수대 성장률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
 - ’21.10월(4,056만 달러, △2.0%), 12월(4,630만 달러, △3.1%)은 동축 케이블 및 기타 동축도체 수출 반락 등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2.1월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22.3월 수출은 광섬유 케이블, 절연전선 등의 수요 증가로 5,000만 달러대를 상회해 주목
 - (연간) ’21년 수출은 코로나19발 데이터 사용량 급증 등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해주는 광섬유 케이블 수요가 폭증하면서 5억 달러대를 돌파. ’22년 수출(3월 누적, 1.4억 달러, 19.5%↑)도 친환경 정책 기조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그림 2-5 월별 및 연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4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3	4	5	6	7	8	9	10	11	12	'22.1	2	3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47.0 (16.2)	38.3 (13.0)	45.7 (77.0)	46.2 (46.5)	50.2 (46.6)	35.1 (39.6)	41.4 (22.2)	40.6 (Δ2.0)	45.2 (20.3)	46.3 (Δ3.1)	46.1 (30.3)	43.6 (25.2)	50.4 (7.1)
동축케이블 기타 동축도체	19.0 (76.0)	13.1 (50.0)	15.5 (148.2)	12.9 (90.7)	19.2 (83.5)	11.4 (66.7)	15.7 (40.8)	9.8 (Δ37.8)	15.3 (36.7)	14.9 (Δ12.4)	12.6 (9.2)	10.5 (Δ5.0)	13.2 (Δ30.9)
광섬유케이블	17.9 (Δ1.9)	17.6 (2.7)	17.4 (19.6)	19.6 (9.5)	21.5 (26.8)	15.9 (23.6)	16.1 (Δ0.2)	19.6 (7.4)	19.3 (10.2)	21.8 (7.4)	19.2 (11.9)	19.0 (22.3)	24.5 (36.8)
절연전선	9.7 (Δ5.3)	7.3 (11.7)	12.3 (186.0)	13.2 (101.6)	9.0 (41.7)	7.3 (43.5)	8.8 (50.3)	10.2 (49.1)	9.9 (17.9)	9.0 (Δ10.5)	13.4 (108.6)	13.2 (67.0)	12.2 (25.6)
LAN케이블	0.4 (Δ66.3)	0.3 (Δ77.1)	0.5 (Δ30.2)	0.5 (50.2)	0.5 (6.1)	0.5 (37.6)	0.7 (9.0)	1.0 (66.8)	0.7 (49.3)	0.6 (42.5)	0.8 (243.5)	0.8 (230.4)	0.6 (45.9)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22.3월 미국은 광섬유 케이블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처음으로 수출 비중이 30%대를 상회하며 27개월 연속 1위를 차지

표 2-5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수출 상위 5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110.7	57.4	21.9	미국	17.4	119.2	34.5	42.7	87.3	30.5
2	중국	48.0	11.9	9.5	중국	3.7	-17.4	7.4	11.3	-7.4	8.0
3	베트남	41.8	40.5	8.3	베트남	3.5	-19.7	6.9	9.1	-6.5	6.5
4	이탈리아	28.0	60.4	5.5	멕시코	3.3	62.7	6.5	8.4	58.6	6.0
5	필리핀	26.6	37.8	5.3	프랑스	2.1	39.6	4.2	6.3	1.1	4.5

자료 : IITP, KTSPI

3 Ex-Brief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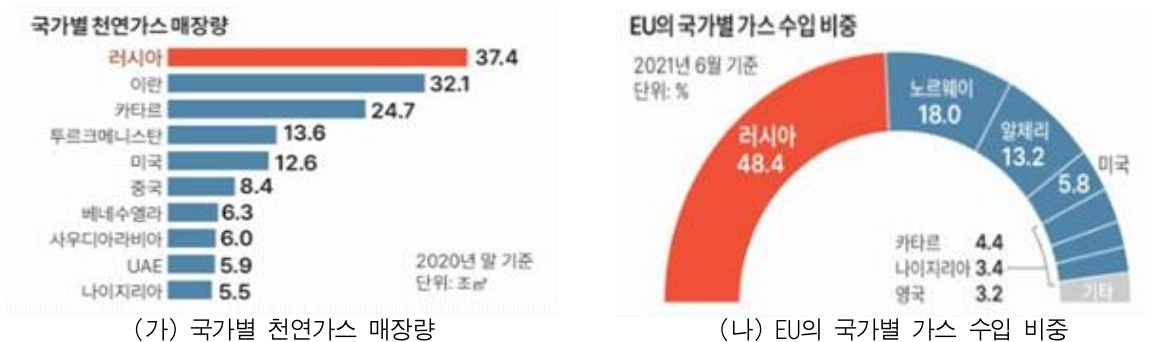
□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對러시아 제재를 확대 시행

- 美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3.31일)
 -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지원한 항공·해운·전자 분야의 21개 기업과 13명의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할 것이라 발표. 특히 러시아의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미크론’을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해 눈길
 - ※ 미크론은 러시아 초소형 전자부품 수출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러시아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세제 혜택 받음)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內 핵심 기업
 -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부차 지역 집단 민간인 대학살’ 만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러시아와 여전히 거래·무역을 지속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을 거론(4.4일)
 - ※ 2차 제재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으로 만약 2차 제재가 시행될 시, 러시아와 지속 거래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
 - 이어 4.7일 석유, 천연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등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WTO 규정에 따라 러시아에 부여했었던 무역 관계상의 최혜국 대우 폐지 법안도 최종 가결. 두 법안 이행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아있는 상황
 - ※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美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러의 최혜국 대우가 박탈될 경우 러시아산 제품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전망. 4.21일 러시아 연계 선박에 대한 미국 항구 입항 금지 조치도 추가 시행
- 4.7일 EU 또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강력 규탄하며 제5차 對러 제재를 합의, G7도 동참
 - (E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규탄의 일환으로 제5차 對러 제재(‘22.8월초부터 발효될 예정)에 합의. 해당 안은 러시아산 석탄(연간 40억 유로 규모) 전면 수입 금지,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첫 제재로 주목
 - ※ 이러한 조치로 러시아는 전체 석탄 수출의 1/4가량에 영향을 받으며 연간 약 80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잃을 것으로 관측
 - 이와 함께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시멘트·고무·목재·비료·보드카 등/연간 55억 유로 규모)와 장비(제트 연료·양자 컴퓨터·첨단 반도체·수송 장비 등/연간 100억 유로 규모)에 대한 수입도 추가 금지
 - 현재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논의 중이나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들이 대체재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근거로 ‘즉각적인’ 수입 금지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단계적인 폐지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
 - ※ 러시아는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천연가스는 1위, 석탄은 3위인 핵심 수출국. 또한 반도체 촉매 재료(팔라듐, 휘발유 등)의 원료인 나프타 등 다른 원자재 분야에서도 주력 공급국임은 틀림없는 사실로 각국의 원자재 전면 수입 금지에 따른 전 세계적인 향후 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

- (G7) 에너지를 포함한 러시아 경제 주요 부문의 신규 투자 금지와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범위 확대, 러시아 은행 및 국영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합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감소를 위해 석탄 수입도 순차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석유 의존도도 낮추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 강조
- 이에 발맞춰 G7 회원국인 일본도 러시아산 석탄(일본 석탄 총 수입량의 11% 차지) 수입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며 최종적으로는 전면 금지할 것이라 발표
 - ※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로 3.21일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남쿠릴열도(러·일 간 영토 분쟁지역)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격 실시
- 또한 4.20일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는 통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러시아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가 적용될 예정. 동시에 자산 동결 대상의 러시아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양도도 막기 위해 외환법 개정 등을 함께 진행

- 한편 EU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유지하며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 탈탄소 정책 이행 차질이 우려
 - EU 전체 발전량 중 석탄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크라이나 침공(2.24일) 이전에는 10% 수준이었으나 이후 13%로 확대된 것으로 관측. 특히 독일의 경우 동 기간 25%—37%로 크게 증가
 - EU는 '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을 목표로 지정했으나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할 전망

그림 2-6 국가별 천연가스 매장량 및 EU의 국가별 가스 수입 비중



자료 : 연합뉴스, 3.9. 재인용(원소스 WSJ, AFP, BP '세계에너지통계보고서')

- 러시아, 서방 국가의 강력한 금융제재 등으로 104년 만에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이 고조
 - 4.6일 러시아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美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달러 표시 국채 2건에 대한 이자를 루블화로 납부하였으나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 감독 기구인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C)는 이자를 '달러'로 납부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러시아의 채무 상환 의무 이행을 실패로 규정

- 이로 인해 러시아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5.4일까지 달러로 이자를 다시 갚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최종 디폴트⁷⁾ 판정을 받게 될 예정
 ※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은 '22.2월초 5% → 3월초 40% → 4월 93% 수준으로 큰 폭 증가(ICE 데이터서비스)
- 4.12일 CDDC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내려진 이후 러시아 기업 중 최초로 국영 러시아철도공사(RZD)의 회사채에 대해 디폴트 판정을 내려 주목. 향후 서방 국가들의 對러시아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러시아 국가 부도의 위기가 현실화될지 이목이 집중

□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中 주요 도시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은 확산 기조

- 中 주요 도시인 상하이, 시안, 광저우 등으로 봉쇄 조치를 확대 시행,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
- 중국은 '22.3월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방지하고자 주요 도시들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 이에 따라 물류 중단, 부분품 생산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
- 특히 세계 최대 무역항을 보유한 中 상하이의 봉쇄 조치가 '22.3.28일부터 현시점(4.25일)까지 장기화되면서 애플, 콰타(세계 최대 노트북 OEM 제조사),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의 상하이 현지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
- 게다가 미국·유럽 등은 해외의 자국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은 탈중국 등을 방지하고자 자동차, 반도체 등 중점 산업 666개에 대해 우선적인 조업 재개를 허가하며 일부 조치를 완화. 그러나 여전한 물류 문제 등으로 4.15일 발표한 666곳 기업 중 30%가량은 아직도 재가동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
-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장쑤성·저장성 지역으로도 봉쇄 정책이 점차 확대(쿤산·타이쿤 등 봉쇄 시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대비책 마련도 시급

표 2-6 장쑤성·저장성에 진출한 주요 국내 기업 및 위성사진으로 보는 컨테이너선 정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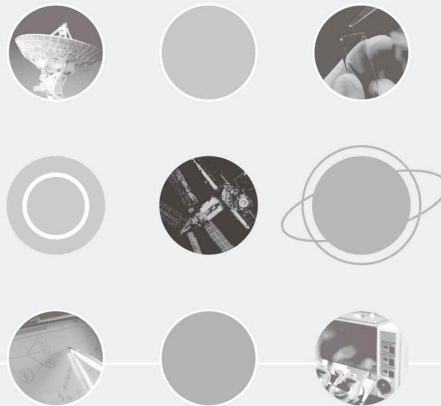
장쑤성	저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 ● SK머티리얼즈 ● LG전자 ● LG디스플레이 ● LG화학 ●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전자(M&A) ● SK네트웍스 ● 롯데케미칼 ● 삼성전자 ● LG화학 ● 만도 	
(가) 장쑤성·저장성에 진출한 주요 국내 기업		(나) 위성사진으로 보는 컨테이너선 정박 현황('22.4.11일 기준)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7)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 등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칭함.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도 해당



III 부록



Ⅲ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1월 당월			1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217,226	8.8	100.0	450,907	10.1	100.0	450,907	10.1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84,065	10.9	70.6	319,788	11.8	70.9	319,788	11.8	70.9
- 전자부품	2,301,413	12.4	44.1	198,860	10.2	44.1	198,860	10.2	44.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420	16.4	3.3	15,161	41.4	3.4	15,161	41.4	3.4
- 통신 및 방송기기	387,675	3.6	7.4	34,054	11.6	7.6	34,054	11.6	7.6
- 영상 및 음향기기	92,022	10.7	1.8	8,700	31.9	1.9	8,700	31.9	1.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28,536	9.2	14.0	63,012	9.2	14.0	63,012	9.2	14.0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44,815	4.5	16.2	69,299	-0.8	15.4	69,299	-0.8	15.4
- 통신서비스	374,162	0.9	7.2	30,955	-1.4	6.9	30,955	-1.4	6.9
· 유선통신서비스	100,651	-0.6	1.9	8,324	-2.6	1.8	8,324	-2.6	1.8
· 무선통신서비스	252,120	1.7	4.8	20,814	-1.3	4.6	20,814	-1.3	4.6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390	-0.4	0.4	1,816	2.5	0.4	1,816	2.5	0.4
- 방송서비스	202,591	3.2	3.9	17,417	3.7	3.9	17,417	3.7	3.9
· 지상파방송서비스	37,103	8.7	0.7	3,088	12.2	0.7	3,088	12.2	0.7
· 유료방송서비스	71,716	3.6	1.4	6,321	7.2	1.4	6,321	7.2	1.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3,220	0.8	1.8	7,960	-1.8	1.8	7,960	-1.8	1.8
· 기타방송서비스	554	1.0	0.0	48	7.7	0.0	48	7.7	0.0
- 정보서비스	268,062	11.1	5.1	20,927	-3.3	4.6	20,927	-3.3	4.6
· 정보인프라서비스	42,542	8.7	0.8	3,691	10.1	0.8	3,691	10.1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5,520	11.6	4.3	17,237	-5.7	3.8	17,237	-5.7	3.8
○ 소프트웨어	688,346	3.6	13.2	61,820	14.7	13.7	61,820	14.7	13.7
- 패키지 소프트웨어	136,410	3.9	2.6	12,028	18.8	2.7	12,028	18.8	2.7
- 게임 소프트웨어	142,195	0.8	2.7	12,874	16.5	2.9	12,874	16.5	2.9
- IT 서비스	409,741	4.5	7.9	36,917	12.9	8.2	36,917	12.9	8.2

자료 : KEA, KAIT, 2022.4.



2

2022년 3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1/4분기	1,464.0	489.5	13.6	1,366.0	309.2	19.0	98.0	180.3
2/4분기	1,567.3	540.8	29.6	1,492.3	319.0	19.1	75.0	221.8
3/4분기	1,645.4	610.4	27.7	1,568.9	340.8	19.1	76.5	269.6
4/4분기	1,767.3	635.4	24.9	1,723.7	381.2	22.0	43.6	254.2
상반기	3,031.3	1,030.3	21.5	2,858.3	628.2	19.1	173.0	402.1
하반기	3,412.7	1,245.8	26.2	3,292.6	722.0	20.6	120.1	523.7
1월	480.1	162.8	21.5	444.6	107.8	22.0	35.5	55.0
2월	447.1	152.6	11.4	424.0	92.0	19.4	23.0	60.6
3월	536.9	174.1	8.9	497.4	109.5	15.9	39.5	64.6
4월	512.3	170.5	32.5	508.9	107.9	21.7	3.3	62.6
5월	507.3	177.3	27.4	479.1	105.2	17.9	28.1	72.1
6월	547.8	193.0	29.1	504.3	105.8	17.8	43.5	87.1
7월	554.6	194.8	30.1	536.8	113.2	14.9	17.9	81.5
8월	531.7	202.3	33.0	515.8	113.9	23.8	15.8	88.5
9월	559.1	213.3	21.1	516.4	113.7	18.9	42.8	99.6
10월	556.6	199.1	21.5	538.5	121.1	18.5	18.1	78.0
11월	603.3	214.9	30.0	573.6	127.7	23.1	29.7	87.2
12월	607.3	221.4	23.3	611.6	132.4	24.3	-4.3	89.0
2022년	1,728.2	617.4	26.1	1,768.6	365.7	18.3	-40.4	251.7
1월	554.3	196.1	20.4	601.6	123.2	14.3	-47.3	72.9
2월	539.1	188.8	23.7	530.8	113.9	23.9	8.3	74.9
3월	634.8	232.6	33.6	636.2	128.6	17.5	-1.4	104.0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24.0	100.0	23,260	33.6	100.0	61,743	26.1	100.0
○ 전자부품	165,059	25.9	72.5	16,746	36.9	72.0	44,647	27.8	72.3
- 반도체	128,699	28.4	56.5	13,197	37.9	56.7	34,551	29.0	56.0
· 메모리반도체	82,431	28.9	36.2	8,201	34.0	35.3	21,023	26.2	34.0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	17.5	4,452	53.5	19.1	11,931	40.3	19.3
- 디스플레이	24,657	19.0	10.8	2,449	45.3	10.5	7,053	31.2	11.4
- 전자관	5	17.1	0.0	0	92.3	0.0	1	-0.5	0.0
- 수동부품	2,344	15.4	1.0	206	2.2	0.9	562	-3.5	0.9
PCB	5,790	15.1	2.5	550	19.1	2.4	1,551	17.5	2.5
- 접속부품	3,338	17.0	1.5	321	10.9	1.4	871	6.4	1.4
- 기타전자부품	160	21.0	0.1	15	12.4	0.1	41	7.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25.0	7.6	1,792	36.9	7.7	4,907	45.5	7.9
- 컴퓨터	2,293	11.3	1.0	70	-61.4	0.3	244	-50.7	0.4
- 주변기기	15,093	27.4	6.6	1,722	52.8	7.4	4,662	62.1	7.6
· 디스플레이장치	745	28.5	0.3	124	119.2	0.5	348	138.2	0.6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14.4	0.2	45	17.8	0.2	115	11.3	0.2
· 보조기억장치	12,954	28.2	5.7	1,421	54.9	6.1	3,947	64.3	6.4
○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22.4	7.4	1,900	43.1	8.2	4,574	16.3	7.4
- 통신기기	16,171	22.4	7.1	1,769	38.3	7.6	4,187	10.2	6.8
· 유선통신기기	957	16.0	0.4	125	58.0	0.5	307	53.2	0.5
· 무선통신기기	15,214	22.9	6.7	1,644	37.0	7.1	3,880	7.8	6.3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24.6	6.1	1,508	36.9	6.5	3,496	5.2	5.7
- 방송용 장비	571	21.6	0.3	131	166.1	0.6	387	191.6	0.6
○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9.9	1.0	221	5.6	1.0	598	3.3	1.0
- 영상기기	1,528	-14.4	0.7	136	-6.7	0.6	368	-3.1	0.6
· TV	1,065	-27.7	0.5	90	-15.3	0.4	246	-9.4	0.4
LCD TV	34	-82.9	0.0	5	100.7	0.0	14	114.5	0.0
TV 부분품	1,014	-13.0	0.4	85	-17.1	0.4	230	-12.2	0.4
· 셋탑박스	22	66.0	0.0	2	348.9	0.0	5	1.6	0.0
- 음향기기	802	-0.1	0.4	81	33.3	0.3	221	15.8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6.4	0.0	4	49.1	0.0	9	5.2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17.3	11.4	2,601	11.4	11.2	7,017	14.5	11.4
- 가정용전기기기	5,709	36.0	2.5	581	23.1	2.5	1,687	37.8	2.7
- 사무용기기	427	25.0	0.2	30	-15.8	0.1	67	-24.1	0.1
- 의료용기기	2,564	25.6	1.1	262	19.5	1.1	683	19.0	1.1
- 전기 장비	11,920	14.2	5.2	1,179	10.0	5.1	3,213	13.6	5.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15.2	3.9	869	8.3	3.7	2,299	11.0	3.7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35,024	19.9	100.0	12,859	17.5	100.0	36,569	18.3	100.0
○ 전자부품	74,610	21.0	55.3	7,389	28.0	57.5	20,932	29.0	57.2
- 반도체	61,719	21.9	45.7	6,085	29.4	47.3	17,370	30.0	47.5
· 메모리반도체	21,579	14.2	16.0	2,199	49.1	17.1	6,483	48.6	17.7
· 시스템반도체	31,479	27.7	23.3	3,125	25.1	24.3	8,734	24.6	23.9
- 디스플레이	3,869	1.3	2.9	484	55.7	3.8	1,294	59.1	3.5
- 전자관	64	14.5	0.0	9	27.3	0.1	19	27.5	0.1
- 수동부품	2,800	25.6	2.1	226	-6.2	1.8	651	0.7	1.8
PCB	3,101	31.2	2.3	309	28.1	2.4	847	28.8	2.3
- 접속부품	2,518	16.1	1.9	217	-6.1	1.7	596	-4.7	1.6
- 기타전자부품	436	52.0	0.3	50	62.2	0.4	134	60.1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749	24.8	12.4	1,574	0.6	12.2	5,024	14.0	13.7
- 컴퓨터	10,233	28.7	7.6	975	-5.8	7.6	3,151	10.7	8.6
- 주변기기	6,516	19.1	4.8	598	13.1	4.7	1,873	20.1	5.1
· 디스플레이장치	1,090	24.4	0.8	116	24.8	0.9	388	35.1	1.1
· 프린터(부분품포함)	963	11.1	0.7	83	-7.8	0.6	237	-9.4	0.6
· 보조기억장치	3,243	21.5	2.4	285	12.4	2.2	918	27.3	2.5
○ 통신 및 방송기기	16,362	12.8	12.1	1,488	16.0	11.6	3,662	-8.9	10.0
- 통신기기	15,815	12.7	11.7	1,413	14.6	11.0	3,451	-11.3	9.4
· 유선통신기기	2,131	11.2	1.6	151	-21.6	1.2	424	-18.9	1.2
· 무선통신기기	13,684	12.9	10.1	1,262	21.3	9.8	3,027	-10.1	8.3
휴대폰(부분품 포함)	10,176	12.2	7.5	921	16.1	7.2	2,081	-17.6	5.7
- 방송용 장비	547	14.8	0.4	75	51.8	0.6	211	60.2	0.6
○ 영상 및 음향기기	3,915	15.9	2.9	295	-18.7	2.3	955	-0.1	2.6
- 영상기기	2,464	14.9	1.8	191	-14.9	1.5	619	3.6	1.7
· TV	1,891	18.2	1.4	141	-20.2	1.1	466	-1.8	1.3
LCD TV	929	40.0	0.7	77	-7.6	0.6	252	6.2	0.7
TV 부분품	575	-29.7	0.4	40	-42.3	0.3	131	-15.2	0.4
· 셋탑박스	214	11.0	0.2	15	-23.4	0.1	50	14.5	0.1
- 음향기기	1,099	9.5	0.8	85	-15.5	0.7	262	-2.7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52.8	0.3	19	-49.6	0.1	74	-16.9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388	18.9	17.3	2,114	7.6	16.4	5,996	12.9	16.4
- 가정용전기기기	4,560	15.6	3.4	380	9.4	3.0	1,152	14.9	3.1
- 사무용기기	33	2.5	0.0	3	-25.1	0.0	8	-10.8	0.0
- 의료용기기	2,287	4.8	1.7	210	0.2	1.6	609	11.3	1.7
- 전기 장비	8,256	39.8	6.1	801	23.4	6.2	2,294	28.5	6.3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191	66.1	3.1	450	49.1	3.5	1,270	66.2	3.5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135,024	92,584	23,260	12,859	10,401	25,174
○전자부품	165,059	74,610	90,448	16,746	7,389	9,358	23,715
- 반도체	128,699	61,719	66,980	13,197	6,085	7,112	17,181
· 메모리반도체	82,431	21,579	60,852	8,201	2,199	6,002	14,540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79	8,273	4,452	3,125	1,327	3,197
- 디스플레이	24,657	3,869	20,788	2,449	484	1,965	5,758
- 전자관	5	64	-59	0	9	-9	-18
- 수동부품	2,344	2,800	-456	206	226	-20	-89
PCB	5,790	3,101	2,689	550	309	241	705
- 접속부품	3,338	2,518	820	321	217	104	275
- 기타전자부품	160	436	-276	15	50	-35	-93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16,749	637	1,792	1,574	219	-117
- 컴퓨터	2,293	10,233	-7,940	70	975	-905	-2,907
- 주변기기	15,093	6,516	8,577	1,722	598	1,124	2,789
· 디스플레이장치	745	1,090	-345	124	116	8	-40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963	-548	45	83	-39	-122
· 보조기억장치	12,954	3,243	9,711	1,421	285	1,136	3,029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16,362	380	1,900	1,488	412	912
- 통신기기	16,171	15,815	356	1,769	1,413	356	736
· 유선통신기기	957	2,131	-1,174	125	151	-26	-117
· 무선통신기기	15,214	13,684	1,530	1,644	1,262	382	853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10,176	3,818	1,508	921	587	1,415
- 방송용 장비	571	547	24	131	75	56	176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3,915	-1,548	221	295	-74	-357
- 영상기기	1,528	2,464	-936	136	191	-55	-251
· TV	1,065	1,891	-826	90	141	-51	-220
LCD TV	34	929	-895	5	77	-72	-238
TV 부분품	1,014	575	439	85	40	45	99
· 셋탑박스	22	214	-192	2	15	-13	-45
- 음향기기	802	1,099	-297	81	85	-4	-41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353	-315	4	19	-15	-6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23,388	2,667	2,601	2,114	487	1,021
- 가정용전기기기	5,709	4,560	1,149	581	380	201	536
- 사무용기기	427	33	394	30	3	27	59
- 의료용기기	2,564	2,287	277	262	210	53	73
- 전기 장비	11,920	8,256	3,664	1,179	801	379	91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4,191	4,583	869	450	419	1,030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27,608	24.0	100.0	23,260	33.6	100.0	61,743	26.1	100.0
○ 아시아	176,605	24.7	77.6	17,862	34.9	76.8	48,277	28.1	78.2
- 중국(홍콩 포함)	107,525	23.8	47.2	10,570	28.6	45.4	28,246	24.7	45.7
- 일 본	4,314	10.7	1.9	464	14.2	2.0	1,137	8.5	1.8
- ASEAN	49,033	21.0	21.5	4,946	44.6	21.3	14,057	33.8	22.8
· 싱가포르	4,775	47.8	2.1	587	48.8	2.5	1,602	68.6	2.6
· 인 니	893	14.7	0.4	114	58.2	0.5	288	37.6	0.5
· 말 련	2,507	19.3	1.1	236	23.7	1.0	684	22.3	1.1
· 태 국	1,354	19.8	0.6	155	35.9	0.7	415	32.2	0.7
· 베트남	35,133	18.0	15.4	3,505	48.9	15.1	9,913	30.3	16.1
- 대 만	12,671	59.6	5.6	1,451	52.4	6.2	3,703	37.8	6.0
- 인 도	2,781	25.2	1.2	394	75.8	1.7	1,059	43.1	1.7
○ 북미	28,776	26.4	12.6	2,970	40.7	12.8	7,274	22.1	11.8
- 미 국	27,947	26.5	12.3	2,842	37.7	12.2	6,987	20.8	11.3
- 캐나다	714	21.2	0.3	118	210.9	0.5	258	73.6	0.4
○ 유럽	15,286	21.6	6.7	1,710	22.3	7.4	4,342	21.9	7.0
- 유럽연합	12,771	22.8	5.6	1,415	27.1	6.1	3,677	25.0	6.0
· 독 일	3,522	21.9	1.5	364	17.4	1.6	890	5.8	1.4
· 프랑스	844	41.9	0.4	93	44.7	0.4	248	49.9	0.4
· 이탈리아	469	43.0	0.2	73	67.9	0.3	148	41.2	0.2
- 영 국	1,044	23.5	0.5	207	39.0	0.9	305	7.7	0.5
- 러시아	791	9.1	0.3	34	-48.8	0.1	198	13.6	0.3
○ 중동	1,593	-5.2	0.7	170	5.4	0.7	433	6.8	0.7
- 사우디	228	-4.0	0.1	34	43.1	0.1	74	29.3	0.1
- UAE	493	-13.4	0.2	46	-31.4	0.2	123	-12.5	0.2
○ 중남미	4,304	13.1	1.9	454	9.6	2.0	1,158	4.0	1.9
- 브라질	1,457	0.5	0.6	155	3.0	0.7	408	-6.0	0.7
- 멕시코	2,511	19.4	1.1	271	18.3	1.2	670	12.4	1.1
- 칠 레	120	49.5	0.1	9	-29.1	0.0	26	-6.2	0.0
○ 대양주	721	1.4	0.3	75	37.6	0.3	199	32.2	0.3
- 호 주	618	-2.5	0.3	66	37.9	0.3	175	33.6	0.3
○ 아프리카	309	10.1	0.1	21	-34.3	0.1	57	-28.8	0.1
※ 브릭스	82,033	22.0	36.0	8,884	44.6	38.2	23,702	35.0	38.4

자료 : IITP, KTSPI

표 3-7 |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35,024	19.9	100.0	12,859	17.5	100.0	36,569	18.3	100.0
○ 아시아	112,900	21.6	83.6	11,210	23.4	87.2	31,070	20.4	85.0
- 중국(홍콩 포함)	59,700	23.8	44.2	4,484	-0.1	34.9	14,994	13.3	41.0
- 일 본	11,978	14.9	8.9	1,119	9.8	8.7	3,102	10.0	8.5
- ASEAN	23,339	13.5	17.3	2,363	12.0	18.4	6,568	16.5	18.0
· 싱가포르	4,079	3.5	3.0	234	-40.3	1.8	960	3.8	2.6
· 인 니	925	94.8	0.7	62	-11.1	0.5	217	2.4	0.6
· 말 련	3,601	9.9	2.7	309	-5.0	2.4	907	2.9	2.5
· 태 국	2,007	29.9	1.5	196	8.6	1.5	532	8.7	1.5
· 베트남	11,177	14.7	8.3	1,420	38.2	11.0	3,540	27.4	9.7
- 대 만	17,770	31.6	13.2	1,709	17.2	13.3	4,853	18.5	13.3
- 인 도	105	31.8	0.1	8	4.6	0.1	25	31.4	0.1
○ 북미	9,087	8.6	6.7	776	1.3	6.0	2,104	-5.7	5.8
- 미 국	8,720	8.5	6.5	737	0.5	5.7	2,005	-6.6	5.5
- 캐나다	246	4.3	0.2	27	25.1	0.2	64	18.6	0.2
○ 유럽	7,925	12.8	5.9	727	3.1	5.7	2,025	15.6	5.5
- 유럽연합	6,880	12.9	5.1	642	7.3	5.0	1,778	17.9	4.9
· 독 일	3,283	11.4	2.4	297	6.4	2.3	837	14.2	2.3
· 프랑스	929	24.0	0.7	96	25.4	0.7	273	59.3	0.7
· 이탈리아	356	1.4	0.3	32	-23.6	0.2	82	-11.8	0.2
- 영 국	562	9.3	0.4	44	-22.2	0.3	123	-2.5	0.3
- 러시아	25	18.0	0.0	1	-74.4	0.0	6	-5.1	0.0
○ 중동	655	18.6	0.5	56	-15.0	0.4	184	-12.5	0.5
- 사우디	2	53.2	0.0	0	-84.2	0.0	0	-88.3	0.0
- UAE	43	-41.5	0.0	1	-69.0	0.0	2	-81.3	0.0
○ 중남미	985	10.7	0.7	83	-12.5	0.6	219	-9.4	0.6
- 브라질	16	42.8	0.0	1	47.2	0.0	2	-53.8	0.0
- 멕시코	965	11.2	0.7	81	-12.9	0.6	216	-8.6	0.6
- 칠 레	1	-25.0	0.0	0	62.8	0.0	0	564.8	0.0
○ 대양주	115	26.1	0.1	5	-33.3	0.0	22	-0.8	0.1
- 호 주	79	28.4	0.1	5	-30.0	0.0	17	0.8	0.0
○ 아프리카	18	-66.0	0.0	2	-36.8	0.0	6	-18.1	0.0
※ 브릭스	58,620	23.7	43.4	4,454	0.7	34.6	14,777	13.3	40.4

자료 : IITP, KTSPI



표 3-8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수출	수입	수지	3월 당월			3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7,608	135,024	92,584	23,260	12,859	10,401	25,174
○ 아시아	176,605	112,900	63,705	17,862	11,210	6,651	17,207
- 중국(홍콩 포함)	107,525	59,700	47,825	10,570	4,484	6,086	13,252
- 일 본	4,314	11,978	-7,664	464	1,119	-655	-1,965
- ASEAN	49,033	23,339	25,694	4,946	2,363	2,583	7,489
· 싱가포르	4,775	4,079	696	587	234	353	643
· 인 니	893	925	-33	114	62	52	71
· 말 련	2,507	3,601	-1,094	236	309	-73	-223
· 태 국	1,354	2,007	-653	155	196	-41	-117
· 베트남	35,133	11,177	23,956	3,505	1,420	2,085	6,373
- 대 만	12,671	17,770	-5,099	1,451	1,709	-258	-1,150
- 인 도	2,781	105	2,676	394	8	386	1,034
○ 북미	28,776	9,087	19,689	2,970	776	2,193	5,171
- 미 국	27,947	8,720	19,228	2,842	737	2,104	4,982
- 캐나다	714	246	468	118	27	91	194
○ 유럽	15,286	7,925	7,360	1,710	727	983	2,317
- 유럽연합	12,771	6,880	5,891	1,415	642	774	1,899
· 독 일	3,522	3,283	238	364	297	67	52
· 프랑스	844	929	-85	93	96	-4	-25
· 이탈리아	469	356	113	73	32	41	65
- 영 국	1,044	562	482	207	44	163	182
- 러시아	791	25	766	34	1	33	192
○ 중동	1,593	655	939	170	56	113	250
- 사우디	228	2	226	34	0	34	74
- UAE	493	43	450	46	1	45	121
○ 중남미	4,304	985	3,320	454	83	371	938
- 브라질	1,457	16	1,441	155	1	154	406
- 멕시코	2,511	965	1,546	271	81	189	454
- 칠 레	120	1	119	9	0	9	25
○ 대양주	721	115	607	75	5	69	178
- 호 주	618	79	538	66	5	61	157
○ 아프리카	309	18	291	21	2	19	51
※ 브릭 스	82,033	58,620	23,413	8,884	4,454	4,429	8,924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0,100	8.1	100.0	1,313	16.0	100.0	12,557	23.5	100.0
○ 전자부품	2,609	7.7	25.8	355	21.1	27.1	3,468	32.9	27.6
- 반도체	1,877	9.0	18.6	260	28.0	19.8	2,463	31.2	19.6
- 디스플레이 패널	244	-5.1	2.4	25	-1.9	1.9	327	33.9	2.6
- 전자관	1	-17.1	0.0	0	19.7	0.0	1	39.3	0.0
- 수동부품	115	38.9	1.1	22	-7.9	1.7	173	49.9	1.4
- PCB	151	3.1	1.5	19	19.1	1.5	209	38.1	1.7
- 접속부품	197	4.0	1.9	25	14.3	1.9	258	31.1	2.1
- 기타 전자부품	24	-2.1	0.2	4	50.1	0.3	36	50.6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24	10.4	20.0	258	18.8	19.7	2,437	20.4	19.4
- 컴퓨터	1,385	15.4	13.7	180	20.8	13.7	1,681	21.4	13.4
- 주변기기	639	1.0	6.3	78	14.4	5.9	755	18.2	6.0
· 디스플레이장치	162	2.7	1.6	24	39.8	1.8	216	33.2	1.7
· 프린터(부품포함)	128	-18.4	1.3	14	4.4	1.1	142	10.2	1.1
· 보조기억장치	174	0.4	1.7	17	0.3	1.3	184	6.2	1.5
· 저장 매체	32	-6.2	0.3	4	22.3	0.3	34	8.3	0.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44	29.4	1.4	18	9.6	1.4	180	25.2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373	0.1	23.5	327	22.1	24.9	2,751	15.6	21.9
- 통신기기	2,265	-0.4	22.4	314	23.9	23.9	2,611	15.3	20.8
· 유선통신기기	498	3.0	4.9	62	16.9	4.7	538	7.9	4.3
· 무선통신기기	1,766	-1.3	17.5	252	25.8	19.2	2,073	17.4	16.5
- 방송국용 기기	108	10.8	1.1	13	-9.2	1.0	132	22.1	1.1
○ 영상 및 음향기기	689	7.8	6.8	71	-10.0	5.4	836	21.4	6.7
- 영상기기	338	4.5	3.3	34	-2.6	2.6	402	19.2	3.2
- 음향기기	234	12.1	2.3	24	-16.1	1.9	269	14.7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6	9.7	1.2	13	-15.6	1.0	165	41.5	1.3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405	15.8	23.8	301	10.0	22.9	3,065	24.5	24.4
- 가정용 기기	909	18.2	9.0	109	4.8	8.3	1,182	22.5	9.4
- 사무용 기기	40	-9.3	0.4	6	30.0	0.4	49	23.1	0.4
- 의료용 기기	162	43.3	1.6	17	14.0	1.3	182	12.5	1.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43	23.3	2.4	26	-9.9	1.9	268	10.5	2.1
- 전기 장비	1,052	10.2	10.4	143	17.9	10.9	1,384	31.6	11.0
· 건전지 및 축전지	241	17.1	2.4	45	61.6	3.4	362	50.0	2.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742	9.0	100.0	801	13.4	100.0	8,213	20.9	100.0
○ 전자부품	4,772	11.1	70.8	582	21.2	72.6	5,857	22.7	71.3
- 반도체	4,001	13.2	59.3	506	27.6	63.1	4,977	24.4	60.6
- 디스플레이 패널	296	-6.6	4.4	26	-11.0	3.2	314	6.1	3.8
- 전자관	2	3.6	0.0	0	-22.9	0.0	2	18.3	0.0
- 수동부품	179	22.9	2.7	19	-22.7	2.4	223	24.7	2.7
- PCB	109	-3.3	1.6	12	10.4	1.5	123	13.3	1.5
- 접속부품	181	1.1	2.7	18	1.5	2.3	212	17.2	2.6
- 기타 전자부품	4	-9.8	0.1	0	18.5	0.1	5	11.1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50	6.8	6.7	47	7.2	5.9	531	17.8	6.5
- 컴퓨터	29	-11.1	0.4	5	61.5	0.6	43	49.5	0.5
- 주변기기	422	8.3	6.3	42	3.2	5.3	488	15.7	5.9
· 디스플레이장치	8	7.9	0.1	0	-55.9	0.0	5	-34.3	0.1
· 프린터(부품포함)	56	-14.7	0.8	5	-8.4	0.7	63	12.3	0.8
· 보조기억장치	257	12.6	3.8	25	6.6	3.1	292	13.9	3.6
· 저장 매체	47	9.2	0.7	5	-19.1	0.6	48	1.3	0.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4	19.2	0.8	7	36.9	0.8	80	47.5	1.0
○ 통신 및 방송기기	473	-0.1	7.0	62	-7.1	7.8	635	24.6	7.7
- 통신기기	448	1.9	6.6	58	-3.4	7.2	575	28.5	7.0
· 유선통신기기	69	5.1	1.0	8	-1.9	1.0	93	34.6	1.1
· 무선통신기기	378	1.4	5.6	50	-3.6	6.2	482	27.4	5.9
- 방송국용 기기	25	-26.0	0.4	2	-36.8	0.3	27	8.3	0.3
○ 영상 및 음향기기	196	12.0	2.9	26	18.7	3.3	233	18.5	2.8
- 영상기기	148	23.9	2.2	22	20.9	2.7	186	25.6	2.3
- 음향기기	43	-13.3	0.6	3	-1.3	0.4	38	-10.4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5	-15.4	0.1	1	78.1	0.1	8	52.6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50	4.2	12.6	84	-10.4	10.5	958	10.8	11.7
- 가정용 기기	180	-0.6	2.7	19	0.1	2.3	218	12.3	2.7
- 사무용 기기	5	-14.0	0.1	0	-6.9	0.1	4	-2.7	0.1
- 의료용 기기	113	6.2	1.7	13	-10.1	1.6	136	20.5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64	7.8	5.4	34	-17.1	4.3	394	8.2	4.8
- 전기 장비	188	1.5	2.8	18	-6.3	2.2	205	8.8	2.5
· 건전지 및 축전지	71	3.8	1.0	6	-5.2	0.8	74	4.2	0.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486	-6.6	100.0	2,847	12.4	100.0	233	5.4	100.0
○ 전자부품	848	-2.4	34.1	1,013	19.3	35.6	86	11.9	36.9
- 반도체	643	-0.3	25.9	776	20.7	27.2	62	6.1	26.7
- 디스플레이 패널	31	-0.3	1.3	35	12.4	1.2	3	5.5	1.3
- 전자관	3	-1.0	0.1	3	7.1	0.1	0	-9.3	0.1
- 수동부품	31	-0.5	1.2	38	21.3	1.3	3	16.9	1.5
- PCB	12	-4.0	0.5	12	-2.2	0.4	1	4.2	0.5
- 접속부품	125	-12.4	5.0	146	16.5	5.1	13	14.6	5.5
- 기타 전자부품	2	-18.3	0.1	2	7.0	0.1	0	39.2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57	-2.3	14.4	390	9.2	13.7	34	5.6	14.4
- 컴퓨터	153	-1.7	6.1	167	9.7	5.9	14	3.3	5.9
- 주변기기	204	-2.8	8.2	222	8.9	7.8	20	7.2	8.5
· 디스플레이장치	15	-16.8	0.6	15	-0.5	0.5	1	6.8	0.6
· 프린터(부품포함)	33	-22.5	1.3	35	3.9	1.2	3	-11.1	1.1
· 보조기억장치	51	-4.2	2.0	52	1.8	1.8	4	-1.8	1.9
· 저장 매체	61	31.3	2.4	72	18.5	2.5	7	25.5	3.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4	-10.6	1.8	49	10.7	1.7	4	4.4	1.8
○ 통신 및 방송기기	334	-12.1	13.5	388	12.2	13.6	30	-7.9	12.8
- 통신기기	310	-11.5	12.5	347	11.9	12.2	28	-4.2	12.1
· 유선통신기기	161	-10.1	6.5	169	4.9	5.9	14	2.8	5.9
· 무선통신기기	149	-12.9	6.0	178	19.4	6.2	2	-84.6	1.1
- 방송국용 기기	25	-19.1	1.0	28	15.9	1.0	1	-64.6	0.3
○ 영상 및 음향기기	84	-16.1	3.4	85	1.3	3.0	8	20.4	3.4
- 영상기기	33	-27.7	1.3	33	-1.7	1.2	2	-13.6	1.0
- 음향기기	37	-8.9	1.5	36	-1.6	1.3	3	0.5	1.2
- 기타 영상음향기기	14	2.1	0.6	16	16.2	0.6	1	27.6	0.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62	-9.0	34.7	971	8.2	34.1	76	3.1	32.4
- 가정용 기기	120	-8.4	4.8	169	9.2	6.0	12	-3.9	5.3
- 사무용 기기	9	-18.4	0.3	9	8.7	0.3	1	1.5	0.3
- 의료용 기기	262	-1.7	10.5	278	6.1	9.8	21	5.7	9.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77	-8.8	11.1	297	7.3	10.4	22	-5.1	9.4
- 전기 장비	194	-17.4	7.8	217	11.6	7.6	17	-1.8	7.1
· 건전지 및 축전지	49	-9.9	2.0	52	5.3	1.8	4	-13.1	1.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5,218	1.4	100.0	6,323	19.8	100.0	557	19.9	100.0
○ 전자부품	893	3.1	17.1	1,110	24.2	17.6	91	20.3	16.4
- 반도체	695	7.4	13.3	860	23.7	13.6	63	9.8	11.3
- 디스플레이 패널	30	0.5	0.6	36	18.2	0.6	2	-30.0	0.4
- 전자관	3	-7.8	0.0	3	7.2	0.0	0	-5.1	0.0
- 수동부품	30	-11.5	0.6	42	39.5	0.7	4	47.9	0.8
- PCB	17	-6.5	0.3	23	34.0	0.4	2	25.4	0.4
- 접속부품	113	-11.3	2.2	139	23.0	2.2	12	14.3	2.1
- 기타 전자부품	5	-20.3	0.1	7	44.2	0.1	1	32.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76	10.5	26.4	1,570	14.1	24.8	130	10.2	23.3
- 컴퓨터	879	14.9	16.8	983	11.8	15.5	77	1.0	13.9
- 주변기기	497	3.5	9.5	587	18.0	9.3	53	27.2	9.5
· 디스플레이장치	78	-13.7	1.5	101	30.0	1.6	11	40.3	1.9
· 프린터(부품포함)	117	-18.9	2.2	140	20.1	2.2	12	13.2	2.2
· 보조기억장치	85	19.7	1.6	104	21.6	1.6	9	29.4	1.6
· 저장 매체	145	32.4	2.8	162	11.6	2.6	14	44.1	2.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2	10.6	1.4	80	10.4	1.3	7	8.3	1.3
○ 통신 및 방송기기	1,082	-7.0	20.7	1,265	16.2	20.0	122	29.5	21.9
- 통신기기	974	-7.6	18.7	1,139	16.9	18.0	118	36.7	21.1
· 유선통신기기	404	-2.3	7.7	443	9.6	7.0	42	30.9	7.5
· 무선통신기기	570	-11.0	10.9	696	22.2	11.0	4	-92.4	0.7
- 방송국용 기기	108	-1.5	2.1	117	9.1	1.9	2	-70.1	0.4
○ 영상 및 음향기기	357	10.5	6.8	462	29.5	7.3	46	39.6	8.3
- 영상기기	161	-5.9	3.1	187	16.0	3.0	14	24.5	2.5
- 음향기기	122	19.9	2.3	164	34.0	2.6	16	21.6	2.9
- 기타 영상음향기기	73	47.8	1.4	111	51.6	1.8	8	-9.1	1.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0	-2.5	28.9	1,916	22.6	30.3	167	16.8	30.0
- 가정용 기기	401	4.5	7.7	575	26.8	9.1	52	13.0	9.3
- 사무용 기기	24	-14.6	0.5	28	15.2	0.4	3	26.3	0.5
- 의료용 기기	311	1.7	6.0	363	16.8	5.7	29	16.9	5.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68	-7.2	5.1	300	11.9	4.7	23	5.0	4.1
- 전기 장비	506	-6.7	9.7	651	28.5	10.3	48	-1.0	8.5
· 건전지 및 축전지	105	14.5	2.0	161	53.9	2.5	16	49.4	2.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06	17.2	100.0	14,147	16.5	100.0	26,741	10.1	100.0
○전자부품	90,410	17.4	52.2	7,470	19.6	52.8	14,479	13.7	54.1
- 반도체	54,546	17.5	31.5	4,307	16.4	30.4	8,540	12.5	31.9
- 디스플레이 패널	7,618	4.2	4.4	368	-30.6	2.6	456	-59.5	1.7
- 전자관	287	10.0	0.2	24	-0.8	0.2	45	1.9	0.2
- 수동부품	11,593	23.5	6.7	906	10.1	6.4	1,821	11.1	6.8
- PCB	3,336	11.7	1.9	272	22.8	1.9	534	13.2	2.0
- 접속부품	12,240	20.5	7.1	948	5.8	6.7	1,793	1.4	6.7
- 기타 전자부품	789	51.8	0.5	66	29.1	0.5	145	45.6	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224	14.3	8.2	1,147	7.5	8.1	2,167	3.0	8.1
- 컴퓨터	1,040	4.7	0.6	82	12.8	0.6	148	7.8	0.6
- 주변기기	13,184	15.1	7.6	1,065	7.2	7.5	2,020	2.7	7.6
· 디스플레이장치	1,339	16.0	0.8	78	-32.5	0.5	156	-27.7	0.6
· 프린터(부품포함)	9,404	16.5	5.4	751	5.9	5.3	1,406	-0.7	5.3
· 보조기억장치	177	-3.9	0.1	11	-16.1	0.1	22	-5.7	0.1
· 저장 매체	1,699	10.7	1.0	175	52.5	1.2	348	51.4	1.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6	10.1	0.3	50	20.5	0.4	87	6.5	0.3
○통신 및 방송기기	7,342	12.5	4.2	342	-38.1	2.4	619	-41.2	2.3
- 통신기기	4,131	9.7	2.4	316	6.6	2.2	591	0.2	2.2
· 유선통신기기	1,071	-2.0	0.6	87	-11.9	0.6	174	-2.9	0.6
· 무선통신기기	3,060	14.5	1.8	114	-42.1	0.8	201	-50.9	0.8
- 방송국용 기기	2,902	13.3	1.7	1	-99.7	0.0	1	-99.8	0.0
○영상 및 음향기기	6,029	13.8	3.5	652	119.9	4.6	1,170	75.5	4.4
- 영상기기	2,379	23.1	1.4	153	6.7	1.1	294	-2.0	1.1
- 음향기기	483	8.0	0.3	40	-5.6	0.3	71	-6.4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167	8.6	1.8	223	101.6	1.6	359	23.2	1.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5,301	18.6	31.9	4,535	14.0	32.1	8,307	7.5	31.1
- 가정용 기기	11,579	18.3	6.7	935	12.1	6.6	1,649	3.4	6.2
- 사무용 기기	416	12.5	0.2	33	47.8	0.2	60	19.2	0.2
- 의료용 기기	6,656	11.7	3.8	577	15.9	4.1	1,056	9.8	4.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2,045	22.0	12.7	1,779	12.0	12.6	3,262	5.9	12.2
- 전기 장비	14,605	17.6	8.4	1,118	7.9	7.9	2,110	3.4	7.9
· 건전지 및 축전지	7,746	24.9	4.5	582	1.1	4.1	1,130	3.4	4.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31	15.5	100.0	14,005	11.6	100.0	31,827	15.6	100.0
○ 전자부품	47,567	30.0	27.4	4,061	35.9	29.0	8,804	39.2	27.7
- 반도체	37,305	31.7	21.5	2,957	28.3	21.1	6,447	31.2	20.3
- 디스플레이 패널	1,904	13.1	1.1	146	23.1	1.0	176	-27.7	0.6
- 전자관	127	6.0	0.1	9	-55.7	0.1	21	-16.9	0.1
- 수동부품	1,413	27.8	0.8	115	37.9	0.8	261	44.1	0.8
- PCB	1,620	24.4	0.9	126	23.7	0.9	309	42.0	1.0
- 접속부품	4,505	25.3	2.6	367	16.7	2.6	817	26.1	2.6
- 기타 전자부품	692	49.7	0.4	63	45.4	0.5	142	54.8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054	0.6	16.2	2,426	7.9	17.3	5,385	5.0	16.9
- 컴퓨터	16,259	-4.0	9.4	1,361	2.4	9.7	3,024	-5.9	9.5
- 주변기기	11,795	7.7	6.8	1,065	15.9	7.6	2,360	23.1	7.4
· 디스플레이장치	1,897	22.1	1.1	140	0.9	1.0	324	8.9	1.0
· 프린터(부품포함)	3,880	2.3	2.2	365	12.4	2.6	768	19.7	2.4
· 보조기억장치	2,450	8.9	1.4	187	-2.6	1.3	447	17.6	1.4
· 저장 매체	1,570	-0.5	0.9	210	92.0	1.5	445	83.1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998	12.7	1.2	162	6.1	1.2	375	6.1	1.2
○ 통신 및 방송기기	36,793	16.2	21.2	2,569	-2.4	18.3	6,713	2.5	21.1
- 통신기기	33,546	16.5	19.4	2,507	5.3	17.9	6,619	9.7	20.8
· 유선통신기기	8,387	8.9	4.8	556	-8.3	4.0	1,586	21.9	5.0
· 무선통신기기	25,158	19.2	14.5	225	-87.3	1.6	571	-87.9	1.8
- 방송국용 기기	2,721	10.1	1.6	1	-99.3	0.0	23	-94.8	0.1
○ 영상 및 음향기기	12,284	7.9	7.1	957	8.3	6.8	2,259	18.2	7.1
- 영상기기	6,839	8.3	3.9	400	-20.3	2.9	952	-8.5	3.0
- 음향기기	3,276	3.7	1.9	217	-13.3	1.5	546	-2.9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2,169	13.9	1.3	144	9.7	1.0	309	-0.1	1.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8,633	14.2	28.1	3,993	5.1	28.5	8,666	13.7	27.2
- 가정용 기기	15,308	12.3	8.8	1,042	-4.7	7.4	2,346	4.0	7.4
- 사무용 기기	726	0.0	0.4	60	-18.9	0.4	137	-7.7	0.4
- 의료용 기기	7,468	13.7	4.3	648	6.5	4.6	1,318	12.5	4.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50	13.4	5.7	819	-2.4	5.8	1,718	5.2	5.4
- 전기 장비	15,280	18.0	8.8	1,191	0.6	8.5	2,663	10.4	8.4
· 건전지 및 축전지	2,857	24.6	1.6	240	19.4	1.7	534	28.7	1.7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095	17.6	100.0	245	22.6	100.0	2,634	25.7	100.0
○ 전자부품	1,606	19.5	76.6	192	25.7	78.2	2,053	27.9	78.0
- 반도체	1,411	21.1	67.3	172	28.9	70.1	1,812	28.4	68.8
- 디스플레이 패널	83	6.8	4.0	7	-14.8	2.9	102	22.5	3.9
- 전자관	0	-6.8	0.0	0	38.0	0.0	0	10.4	0.0
- 수동부품	32	23.1	1.5	4	11.6	1.5	42	30.5	1.6
- PCB	56	6.7	2.7	6	14.4	2.6	66	17.4	2.5
- 접속부품	22	3.8	1.1	3	31.1	1.1	30	35.7	1.1
- 기타 전자부품	0	-9.6	0.0	0	83.8	0.0	0	24.1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7	19.5	9.9	22	10.1	8.9	236	14.0	9.0
- 컴퓨터	82	29.4	3.9	9	9.9	3.6	88	7.8	3.4
- 주변기기	125	13.8	6.0	13	10.3	5.3	148	18.0	5.6
· 디스플레이장치	6	13.2	0.3	1	-13.8	0.2	7	10.3	0.3
· 프린터(부품포함)	3	-17.6	0.1	0	17.7	0.1	3	24.0	0.1
· 보조기억장치	7	13.4	0.3	1	25.5	0.3	8	11.7	0.3
· 저장 매체	92	20.7	4.4	9	0.2	3.7	106	15.1	4.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7	-8.9	0.8	3	76.4	1.0	24	38.6	0.9
○ 통신 및 방송기기	110	12.9	5.2	13	23.4	5.5	127	16.0	4.8
- 통신기기	97	15.4	4.6	12	23.1	4.9	112	15.5	4.3
· 유선통신기기	67	22.1	3.2	9	35.3	3.5	78	17.3	3.0
· 무선통신기기	31	3.2	1.5	3	0.5	1.4	34	11.5	1.3
- 방송국용 기기	11	-4.6	0.5	1	24.3	0.5	14	19.5	0.5
○ 영상 및 음향기기	63	5.9	3.0	6	-5.2	2.5	83	31.6	3.1
- 영상기기	58	10.0	2.8	6	-6.4	2.3	76	30.9	2.9
- 음향기기	4	-31.7	0.2	0	6.9	0.2	6	42.8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0	18.9	0.0	0	49.9	0.0	0	16.3	0.0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110	1.5	5.2	12	16.8	4.9	134	22.6	5.1
- 가정용 기기	22	7.0	1.1	3	12.1	1.0	27	19.5	1.0
- 사무용 기기	6	-13.5	0.3	1	21.7	0.3	7	19.7	0.3
- 의료용 기기	6	7.0	0.3	1	19.5	0.2	7	14.0	0.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6	10.1	1.7	4	13.3	1.6	43	21.2	1.6
- 전기 장비	40	-6.1	1.9	4	21.9	1.8	51	27.2	1.9
· 건전지 및 축전지	8	-9.1	0.4	1	33.8	0.4	10	19.6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302	39.0	100.0	128	20.4	100.0	1,440	10.6	100.0
○ 전자부품	953	40.9	73.2	94	23.4	73.8	1,076	12.8	74.7
- 반도체	850	40.3	65.3	84	23.7	65.8	957	12.7	66.5
- 디스플레이 패널	19	31.4	1.5	2	-0.2	1.2	19	-4.8	1.3
- 전자관	0	36.9	0.0	0	-48.3	0.0	0	8.5	0.0
- 수동부품	27	48.6	2.1	3	27.0	2.3	34	24.6	2.3
- PCB	31	57.5	2.4	3	31.1	2.5	36	16.3	2.5
- 접속부품	25	44.1	1.9	2	19.3	1.8	28	13.2	1.9
- 기타 전자부품	1	6.0	0.1	0	45.3	0.1	2	45.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86	43.7	6.6	9	34.0	6.7	92	6.8	6.4
- 컴퓨터	30	36.4	2.3	3	30.5	2.2	34	11.7	2.3
- 주변기기	56	47.9	4.3	6	35.7	4.5	59	4.2	4.1
· 디스플레이장치	6	26.6	0.5	1	29.7	0.6	8	24.5	0.5
· 프린터(부품포함)	4	7.8	0.3	0	-0.5	0.3	4	-10.3	0.3
· 보조기억장치	11	31.5	0.9	1	9.8	0.6	12	8.2	0.8
· 저장 매체	28	72.4	2.1	3	56.1	2.5	27	-3.0	1.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	52.1	0.5	1	19.4	0.4	8	18.1	0.5
○ 통신 및 방송기기	82	29.0	6.3	8	-3.4	6.4	84	1.4	5.8
- 통신기기	75	28.4	5.8	7	-4.3	5.8	76	1.3	5.3
· 유선통신기기	23	61.1	1.8	2	17.9	1.8	24	4.5	1.7
· 무선통신기기	52	17.8	4.0	5	-11.4	4.1	52	-0.1	3.6
- 방송국용 기기	4	38.6	0.3	0	-2.8	0.4	5	4.4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5	48.9	1.9	2	-0.8	1.7	25	2.8	1.8
- 영상기기	15	38.2	1.2	1	9.2	1.1	17	13.0	1.2
- 음향기기	6	47.4	0.4	0	-8.9	0.3	6	-3.4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4	120.3	0.3	0	-29.0	0.2	3	-28.6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5	30.1	11.9	15	15.3	11.4	163	4.9	11.3
- 가정용 기기	37	28.3	2.8	4	11.0	2.7	40	9.0	2.8
- 사무용 기기	2	-5.2	0.1	0	69.6	0.2	2	10.2	0.1
- 의료용 기기	17	36.1	1.3	1	0.1	1.0	15	-8.4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65	35.7	5.0	6	13.0	4.7	68	4.8	4.7
- 전기 장비	35	21.9	2.7	4	29.7	2.8	37	7.1	2.6
· 건전지 및 축전지	11	20.8	0.8	1	47.1	0.9	12	11.7	0.8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9	15,237	-15.0	93,826	-5.4	909	-32.4
	2020	19,255	26.4	55,017	-41.4	1,061	16.7
	2021p	15,751	-18.2	51,933	-5.6	968	-8.8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7	-15.2	24,180	33.8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16	110.2	14,963	-41.1	254	76.4
	4/4	3,583	-6.4	13,136	-45.7	394	1.8
	2021.1/4	4,235	2.2	10,755	-16.4	208	13.7
	2/4	4,448	16.6	17,115	21.8	219	-4.8
	3/4	3,589	-53.5	12,732	-14.9	244	-3.9
	4/4p	3,468	-3.2	11,330	-13.7	313	-20.6
직접구매 (수입)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14.7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p	63,075	21.0	361,553	7.0	20,421	35.2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8,962	53.6	132,807	46.2	6,873	115.4
	2/4	12,122	8.6	65,035	-11.9	4,170	16.7
	3/4	11,425	20.4	56,231	-4.7	3,841	2.1
	4/4p	20,566	7.5	107,480	-6.0	5,537	20.9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1.1월	177.5	257.0	24.4	29.3	118.2	129.9	45.2	61.0	88.6	100.9	147.8	183.6
2월	171.9	248.4	20.6	24.9	103.4	113.7	43.2	58.3	70.9	81.5	142.1	175.4
3월	195.4	281.9	21.0	24.6	119.4	131.4	50.6	68.3	75.5	90.6	170.4	208.9
4월	189.4	242.9	22.1	25.4	113.9	125.7	50.3	67.0	79.5	95.6	155.4	190.7
5월	207.5	264.9	23.4	26.6	112.8	124.4	54.1	71.6	74.3	89.6	146.8	180.9
6월	231.7	292.9	22.1	24.3	121.6	133.7	50.8	66.9	76.0	92.7	160.8	199.3
7월	227.7	273.4	25.3	27.8	132.6	146.2	51.7	66.2	83.4	101.8	151.1	180.8
8월	244.9	293.1	25.1	28.7	131.4	131.2	48.7	62.4	93.9	114.4	150.6	180.4
9월	256.8	308.7	23.6	28.9	128.2	128.3	56.7	72.5	104.8	130.7	167.6	200.6
10월	230.0	288.9	22.2	29.5	127.8	127.9	52.4	66.9	104.8	129.1	162.5	189.7
11월	251.3	316.8	22.7	31.1	127.2	108.0	56.7	72.4	112.3	132.5	168.8	198.0
12월	261.8	330.2	25.6	35.8	131.4	112.6	65.3	82.6	107.1	126.9	178.4	210.3
'22.1월	224.4	303.6	29.5	42.1	123.8	106.6	30.5	40.0	85.8	102.2	152.0	183.1
2월	219.3	295.4	27.1	39.3	118.7	102.1	26.0	34.3	81.3	96.9	152.0	183.1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1.1월	148.5	207.8	33.7	31.1	119.9	131.6	206.2	214.2	162.3	190.7	148.8	142.8
2월	133.5	186.8	26.4	22.8	101.8	111.1	155.5	160.4	112.7	132.3	136.6	132.1
3월	151.8	212.5	30.5	25.1	130.6	141.6	198.7	206.4	134.4	157.8	162.6	156.9
4월	151.9	206.8	28.7	22.2	123.8	131.3	167.7	174.1	149.6	176.3	135.7	131.0
5월	153.0	210.6	26.4	20.1	132.9	137.5	169.4	177.6	120.6	142.2	136.6	131.8
6월	157.8	217.0	29.7	21.6	132.4	136.1	147.1	149.5	109.6	130.3	140.1	135.1
7월	175.1	235.0	25.5	18.4	134.7	139.5	154.5	156.4	130.3	159.3	139.2	134.5
8월	174.2	233.8	25.3	19.3	139.2	144.5	157.4	159.5	139.8	170.9	131.3	126.1
9월	178.5	239.6	29.7	24.9	138.3	143.6	160.0	161.5	130.9	162.4	126.3	120.9
10월	176.2	239.1	29.9	28.8	141.2	145.9	145.0	146.8	201.2	239.5	135.6	131.1
11월	197.0	269.8	37.0	37.4	155.7	160.7	159.5	161.8	169.9	202.2	146.8	142.3
12월	205.5	281.5	26.3	27.7	146.0	150.1	189.7	192.3	157.4	187.4	165.7	161.7
'22.1월	191.7	268.4	45.3	50.1	137.1	140.7	215.5	219.2	127.0	151.4	135.1	132.2
2월	178.7	250.3	39.8	46.4	120.9	123.9	186.0	189.3	119.9	142.9	130.8	126.3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 과제 책임자 : 강은숙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홍수표, 최동렬, 반치호, 박찬선,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50, 팩스 : (042) 612-8209